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0년 5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6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 당선 동문들을 초청, 축하 모임을 개최했다. (커버스토리 4~5면)

21세기 「정치 主役」 당선을 축하합니다



· 지난 4월 13일 새 천년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대학교 출신 147명이 당선되었다. 총동창회에서는 새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이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당부하는 축하모임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뜻을 펴지 못한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

선거가 끝난 이제 우리는 경제와 민생, 남북 문제를 비롯한 국가적 현안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선거기간 중의 모든 갈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승자는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며, 패자는 대국적인 아량으로 승복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들의 참된 뜻을 헤아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이 후보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수신제가, 병역, 납세, 전과 유무,

정치적 행적이 크게 문제가 된 선거는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다. 관리들에게 선비정신을 요구하던 우리의 오랜 전통이 되살아나고, 유럽에서의 「Noblesse Oblige」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덕목의 기준으로 정착되어 가는 느낌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서울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라가 바라는 서울대학교

생각할 때, 국민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에게 바라는 바는 각별하다. 건국 이래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고, 국군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유일한 국립대학이던 시절부터 서울대학교 출신은 나라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한 때 세계 경제의 11위를 차지하고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 4위를 기록한 우리 나라에서,

학문과 예술의 큰 중심 도장인 서울대학교를 세계 유수 대학으로 키우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학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면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입시 철에나 관심을 나타내던 언론이 서울대학교에 매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적 요청의 반영일 수도 있고, 나라와 겨레가 서울대학교에 바라는 바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사태에 관한 일부 언론의 지나친 비판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 서울대학교는 여전히 열심히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나라가 서울대학교와 그 출신자들에게 바라는 바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할 때이다.

(熙)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金有信,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6월 12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한 자리에 對坐하는 역사적 회담이니 언론인이나 실향민이 아니더라도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슴 설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冷戰地帶」에도 마침내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강대국은 물론 세계 각국도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분명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탈냉전화를 향한 힘찬 始動이자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는 세계적 뉴스거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발표를 접하는 국민들의 놀라움과 충격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졌다가 金日成주석의 急逝로 무산된 적이 있는 데다,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하루가 다르게 感性的에서 理性的으로 성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남북정상회담을 6년만에 다시 추진하는 정부당국이나 이를 보도해야하는 한국언론으로서 이 시점에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이 있다.

첫째는 아직도 對南 비방방송을 계속하는 북한이 선뜻 정상회담에 응한 眞意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이다. 북한이 기존의 「通美封南」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對南政策의 변화 없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1회용 제스처인지를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정확히 파악해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愚를 범하지



노리나무광장

南北정상회담을 기다리며



KBS 金仁圭
뉴미디어센터장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가급적 정치적 이거나 이념적 문제는 피하고, 남북이산가족상봉이나 對北 SOC투자와 같은 인도적, 경제적으로 현실 가능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金大中대통령이 4월 17일 對國民談話를 통해 「남북대화는 한 번에 나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다음 정권에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재임기간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려는데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북한간에 극비접촉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의 추진과정이나 회담 결과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만 한다. 특히 지난 16대 총선 결과에 나타났듯이 東西간에도 지역정서 괴리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 남북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與野간에 초당적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南과 北이 주도해 나가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인 美·日·中·러시아 등을 모두 설득하는 일이야말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야만 이들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 냉전구도의 틀이 깨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北美 회담, 北日 회담, 4자 회담의 협상속도를 높여 국제사회의 對北경제지원 분위기를 적극 고취시키는데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할 때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지구촌 고통에도 마음 열자

얼마 전 金容沃교수가 열강하는 노자 관련 TV강좌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노자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위자연이 아닌가 싶다.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생명의 신비가 깨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양의 정보와 자금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다시 노자 사상이 각광을 받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점도 있다.

만행이라는 책이 화제를 낳는다.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한 벽안의 청년이 삭발을 하고 산사를 떠돌며 구도의 길에 정진하고 있다. 과연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고 인생의 참뜻은 무엇인가? 현대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저 부탄의 시골마을에서 부처 앞에 수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촌로는 세기를 앞서가는 최첨단 주택에서 살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빌 게이츠보다 덜 행복한가?

물 한 양동이를 얻기 위해 아이들을 둘러 업고 수십리를 왕복하는 저 아프리카 오지의 아낙네가 어쩌면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이 정수된 물이 팔팔 쏟아지는 서울의 현대식 빌라에 사는 사모님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행복은 그만큼 상대적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은 멈추지 않는 수레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인간이 아무리 자연상태에서 자연과 동화돼 살기를 원해도 문명과 개발은 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듯 거스를 수 없는 순리이다.

개발에 뒤지면 뒤질수록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한 나라의 명운과 장래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가 급속도로 좁아져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상황에서 저개발 국가가 느끼는 빈곤감과 박탈감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리라고 본다.

전 세계 인구 60억명 중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이들 중 15억명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겨우 생계

를 꾸려나간다. 1달러는 단돈 1천원 남짓하다. 우리 나라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안된다. 우리 나라 사람이나 먼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굶주림으로 빼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나 똑같이 고귀한 생명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식의 선진화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만의 이익, 내 가족의 행복 같은 좁고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남의 고통, 거기서 더 나아가 남의 나라의 어려움에도 눈을 돌리고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사고를 갖추는 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의 바탕 위에서만 모든 사회규범과 제도도 형식만의 차용이 아닌 그 내용과 실질면에서도 선진화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 살 수 없다. 개도국의 안정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 개도국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일, 그리고 개도국의 발전을 돕는 일, 그것은 우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투자다. 그런 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기타 개발 비정부기구(NGO)들의 국제협력활동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굶주림으로 켠 눈으로 죽어 가는 아이가 없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목소리로 「세계는 하나(We are the world)」를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李升煥

(59년 法大卒)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前그리스 대사





모교 사회과학대학 黃秀益학장

부인·형·여동생·두 매제 문리대 출신

동송동 문리대 교정에서 낭만을 느끼며 보냈던 학창시절. 그때를 회상하며 한집에 모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이 있으니 바로 黃秀益(64년 文理大卒·모교 사회과학대학장)동문 가족이다.

이들이 문리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가족 중 동송동 캠퍼스를 누볐던 문리대생이 자그마치 6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특히 黃秀益동문이 1학년일 때 형 黃淵益(61년 文理大卒·前조흥은행 대흥동 지점장)동문은 졸업반이었으며, 黃秀益동문이 4학년이던 해에는 여동생 黃惠仁(67년 文理大卒·동국대 교수)동문이 이제 막 초년생으로 대학생활에 들어있던 신입생이었다.

사람의 인연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듯이 가족중 세 커플은 한국이 아닌 외국 유학중 만나 모두 바다 건너서 결혼을 했다. 黃秀益동문은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지금의 동반자인 任慈惠(75년 文理大卒·경기대 교수)동문을 만났고, 독일 본대학에서 黃惠仁·徐丙詰(63년 文理大卒)커플과 막내 동생인 黃惠允·金秀勇(69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커플이 탄생했다.

黃秀益동문에게는 유난히 그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으며, 후배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하다. 어릴적부터 의협심이 강해 지금도 그의 주위에는 친구들로 북적댄다. 그래서일까? 시부모를 극진히 대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는 뛰어난 아내를 둘 수 있었던 것도 그의 人福이라고.

독일 문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독일 유학을 떠난 黃惠仁동문은 본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던 徐丙詰동문을 만나 힘든 유학생활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럽 및 독일 통일 전문가인 徐丙詰동문은 외교관 생활을 거쳐 현재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족 중 막내인 黃惠允동생도 독일 본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다 같은 대학을 다니던 金秀勇동문을 만나는 바람에 두 쌍의 동양인 커플이 캠퍼스를 활보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金동문은 독일인도 놀랄만한 유명한 독일 저서들을 출판한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동문 중 유일하게 교직의 길이 아닌 금융업을 택한 黃淵益동문은 금융업계에서 퇴임한 부친의 뒤를 이어 얼마전까지 조흥은행 대흥동 지점장으로 근무했었

다.

『2남 2녀 모두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부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黃秀益동문은 특히 부친 故 黃祐泳은 아들, 딸 차별 없이 자식 모두의 교육 투자에 헌신적이었으며, 모친 高貞淑도 자식이 공부 하겠다면 발벗고 나서 오히려 4남매가

꿈쩍 않고 공부에 더 몰두했었다고 한다. 한편 高여사는 야구와 골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미리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신세대 감각을 지닌 어머니다.

이들이 갖는 가족 모임은 조촐하면서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편안한 모임이다. 명절이나 제사때는 누군가 화제가 될만한 주제를 던지면 어머니를 포함, 3대가 모두 자리를 펴고 방안이 후끈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고.

『가족 모두 문리대 동문으로 가진 것 없어도 문리대를 상징하는 순수하고 풍요로움으로 정신과 마음을 채웠던 그 당시 그 시절을 잊지 못해 모두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黃秀益교수는 덧붙였다.

(表)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金秀勇동문, 한 명 건너 任慈惠·黃秀益·徐丙詰·黃淵益동문, 한 명 건너 黃惠仁동문.



마산지부

지역내 의료·교육 분야 등에 일익 담당 76년 창립, 회원 3백명의 대가족 자랑도

마산지부는 1976년 12월 4일 安在鏞(50년 醫大卒·순안병원장)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20여명의 동문이 뜻을 같이하여 결성했다. 당시는 경남도청이 창원에 자리잡기 이전이어서 마산이 경남의 중심이었으며, 마산을 중심으로 진해와 창원원은 물론 충무, 함안, 창녕, 김해를 포함, 중부와 동부를 모두 망라해 경남을 대표하는 지부 역할을 해왔다. 그후 창원에 공단이 조성되고 도청이 자리 잡으면서 경남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이 창원으로 옮겨졌지만, 동창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마산지부에서 그대로 맡아 해오고 있다.

초대 安在鏞회장이 동창회의 초석을 마련한 이후 2대 金炯甲(52년 商大卒), 3대 朴然洙(54년 齒大卒), 4대 權永煥(58년 藥大卒), 5대 申尙澈(59년 師大卒), 6대 金炯英(60년 商大卒), 7대 姜來烈(62년 醫大卒), 8대 宋國憲(62년 商大卒)동문 등이 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9대 李景宰(63년 文理大卒)동문이 회장직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역대 회장들의 동창회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현재 회원 수는 3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달 1일에 고문단과 現회장단 그리고 단과대학 이사들로 구성된 이

사회 모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매년 12월 12일에 개최하고 있는 총회에는 50여명의 동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각 단과대학 동창회와의 유기적인 연락 부족과 총회 개최시 다양한 연령층을 고루 만족시킬 프로그램의 부재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마산지부 동문들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은 물론 모교의 명예를 크게 빛내고 있다.

현재 지부 회장인 李景宰동문이 경영하는 동진분석기술연구소는 독보적인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분석실험도 1위를 인정받는 등 국민 건강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역은행인 경남은행은 朴東勳(65년 文理大卒)동문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99년 중소기업 지원 우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李景宰 회장

글 : 趙丙勳(66년 師大卒·창원대 교수)총무

받기도 했으며, 李梓旭(65년 工大卒)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외국계기업 노키아 TMC는 지난 99년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李梓旭동문은 경남 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경남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지난 3월 수출자유지역 기업협회장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선천성 얼굴기형인 어린이들을 찾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남 동그라미회」 후원 회장을 맡아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安在鏞동문을 비롯해 姜來烈·鄭宗煥(62년 醫大卒)·趙星浩(68년 齒大卒)·權永煥·安鍾武(56년 藥大卒)동문 등이 마산지역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경남문학상운영위원장을 맡아 경남의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는 申尙澈동문과 창원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역임한 全貞子(59년 音大卒)동문 등은 지역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개최된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우수지부로 인정받아 총동창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한 마산지부는 이제 새 천년을 동창회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내실을 다지면서 웅비의 나래를 활짝 펴기 위해 동문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다.



99년 개최된 정기총회.

제16대 총선 당선 동문 명단

지난 4월 13일 거행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47명의 동문들이 선량으로 당선돼 모교의 위상을 다시한번 드높였다. 이에 본지를 통해 당선된 동문을 소개함으로써 25만 동문과 함께 축하하고자 한다.

단과대별 당선자 현황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한국신당	무소속	계
인문대		1					1
사회대	1	3					4
경영대	2						2
공대	3						3
문리대	14	6				1	21
법대	30	15	6		1	1	53
사대	4	2	1				7
상대	3	7				1	11
약대	1						1
치대	1						1
경대원			1				1
사대원		1					1
신대원		1					1
행대원	1		1	1		1	4
AMP	10	8	1				19
ACAD	4	5	3	1			13
SGS	2	1					3
EPHPM	1						1
계	77	50	13	2	1	4	147

※AMP(최고경영자과정), ACAD(국가정책과정),
SGS(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EPHPM(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총선 당선자 명단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選數
전국구	한나라당	李會昌	57년 法大卒	2
"	"	洪思德	68년 文理大卒	5
"	"	申榮均	55년 齒大卒	2
"	"	徐廷和	55년 法大卒	5
"	"	李祥義	61년 藥大卒	4
"	"	朴世煥	39기 AMP	2
"	"	李漢久	69년 商大卒	1
"	"	金貞淑	27기 ACAD	3
"	"	黃勝敏	26기 AMP	2
"	"	林鎮出	35기 AMP	2
"	"	李源炯	74년 工大卒	1
"	민주당	張泰玩	6기 AMP	1
"	"	朴仁相	28기 AMP	1
"	"	朴相熙	26기 AMP	1
"	"	許雲那	71년 文理大卒	1
"	"	崔在昇	38기 ACAD	3
"	"	柳三男	24기 AMP	1
"	자민련	金鍾泌	46년 師大入	9
"	"	金宗鎬	59년 法大卒	6
"	"	趙富英	12기 ACAD	3
"	"	安大崙	67년 經大院卒	1
"	민국당	姜淑子	32기 ACAD	1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選數
종로	한나라당	鄭寅鳳	75년 法大卒	1
중	민주당	鄭大哲	67년 法大卒	5
용산	"	侯松雄	42기 ACAD	1
강북갑	"	金元吉	68년 商大卒	3
강북을	"	趙舜衡	64년 法大卒	5
도봉갑	"	金權泰	72년 商大卒	2
노원갑	"	咸承熙	74년 法大卒	1
서대문을	"	張在植	56년 法大卒	3
마포갑	한나라당	朴明煥	43기 ACAD	3
마포을	"	朴柱千	65년 工大卒	3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選數
양천갑	한나라당	元喜龍	89년 法大卒	1
강서갑	민주당	辛基南	74년 法大卒	2
강서을	"	金成鎬	85년 社會大卒	1
영등포갑	"	金明燮	31기 ACAD	3
영등포을	"	金民錫	89년 社會大卒	2
동작갑	한나라당	徐淸源	26기 AMP	5
관악을	민주당	李海瓚	72년 文理大入	4
서초갑	한나라당	朴源弘	40기 AMP	2
서초을	"	金德龍	61년 文理大入	4
강남갑	"	崔秉烈	64년 法大卒	4
강동갑	"	李富榮	69년 文理大卒	3
강동을	민주당	沈載權	69년 商大入	1
서	한나라당	鄭文和	65년 法大卒	2
중동	"	鄭義和	3기 EPHPM	2
영도	"	金炯昨	71년 文理大卒	3
부산진갑	"	鄭在文	5기 AMP	5
동래	"	朴寬用	18기 ACAD	6
북구·강서갑	"	鄭亨根	68년 法大卒	2
해운대·기장을	"	安炅律	71년 文理大卒	1
사하갑	"	嚴虎聲	80년 師大卒	1
사하을	"	朴鍾雄	75년 法大卒	3
금정갑	"	金鎮載	16기 AMP	5
수영	"	柳興洙	65년 法大卒	4
사상	"	權哲賢	3기 SGS	2
서	"	姜在涉	74년 法大卒	4
남	"	玄勝一	66년 文理大卒	1
북을	"	安澤秀	66년 文理大卒	2
수성을	"	尹榮卓	60년 文理大卒	3
달서갑	"	朴鍾根	61년 商大卒	2
달서을	"	李海鳳	67년 法大卒	2
중구·동구·용진	"	徐相燮	72년 文理大卒	1
연수	"	黃祐呂	69년 法大卒	2
남동을	민주당	李浩雄	80년 社會大卒	1
부평갑	"	朴尙奎	31기 AMP	2
남	무소속	姜雲太	72년 文理大卒	1
북을	민주당	金泰弘	66년 文理大卒	1
동	자민련	李良熙	66년 法大卒	2
중	"	姜昌熙	22기 ACAD	5
대덕	한나라당	金元雄	72년 文理大卒	2
중	"	金泰鎬	61년 法大卒	4
남	"	崔炳國	65년 法大卒	1
동	무소속	鄭夢準	75년 商大卒	4
울주	한나라당	權琪述	9기 AMP	2
성남분당갑	"	高興吉	66년 文理大卒	1
성남분당을	"	任太熙	80년 經營大卒	1
의정부	민주당	文喜相	68년 法大卒	2
인양만안	"	李鍾杰	89년 法大卒	1
인양동안	한나라당	沈在哲	85년 師大卒	1
부천 원미갑	민주당	安東善	21기 AMP	4
부천 소사	한나라당	金文洙	94년 經營大卒	2
부천 오정	민주당	崔善榮	46기 ACAD	2
광명	한나라당	孫鶴圭	73년 文理大卒	3
평택을	민주당	鄭長善	4기 SGS	1
동두천·양주	한나라당	睦堯相	61년 法大卒	4
안산을	민주당	千正培	76년 法大卒	2
고양 덕양갑	"	郭治榮	65년 商大卒	1
과천·의왕	한나라당	安商守	68년 法大卒	2
시흥	민주당	朴炳潤	63년 商大卒	1
군포	한나라당	金富謙	87년 社會大卒	1
하남	"	俞成根	73년 法大卒	1
파주	"	李在昌	60년 法大卒	2
용인갑	민주당	南宮哲	42기 AMP	1
김포	"	朴宗雨	62년 法大卒	2
여주	한나라당	李揆澤	68년 師大卒	3
연천·포천	자민련	李漢東	58년 法大卒	6
춘천	민국당	韓昇洙	63년 行大院卒	3
강릉	한나라당	崔燮雄	58년 工大卒	3
동해·삼척	"	崔鎔熙	68년 法大卒	2
청주상당	민주당	洪在馨	60년 商大卒	1
청주흥덕	한나라당	尹景湜	85년 法大卒	1
충주	민주당	李源性	67년 司大院卒	1
보은·옥천·영동	한나라당	沈揆喆	80년 法大卒	1
진천·괴산·음성	자민련	鄭宇澤	79년 行大院卒	2



金在淳회장(中)이 본회 부회장으로서 당선된 崔秉烈(右)·鄭大哲(左)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李吉女(의대동창회장) 부회장(左)이 여성동문으로 당선된 許雲那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選數
천안갑	민주당	田溶鶴	77년 法大卒	1
천안을	자민련	咸錫宰	63년 法大卒	3
보령·서천	한국신당	金龍煥	56년 法大卒	4
아산	자민련	元喆喜	62년 法大卒	1
논산·금산	민주당	李仁濟	72년 法大卒	3
부여	자민련	金學元	70년 法大卒	2
청양·홍성	"	李完九	30기 ACAD	2
예산	"	吳長燮	27기 AMP	3
당진	민주당	宋榮珍	36기 ACAD	2
전주덕진	"	鄭東泳	79년 人文大卒	2
군산	"	姜賢旭	61년 文理大卒	2
익산	"	李協	71년 法大卒	4
정읍	"	金元基	70년 新大院卒	5
남원·순창	무소속	李康來	84년 行大院卒	1
김제	민주당	張誠源	61년 師大卒	2
순천	"	金景梓	64년 文理大卒	2
나주	"	裴奇雲	78년 法大卒	1
광양·구례	"	鄭哲基	63년 師大卒	1
담양·곡성·장성	"	金孝錫	72년 商大卒	1
고흥	"	朴相千	62년 法大卒	4
보성·화순	무소속	朴柱宣	74년 法大卒	1
강진·완도	민주당	千容宅	31기 AMP	2
무안·신안	"	韓和甲	63년 文理大卒	3
함평·영광	"	李洛淵	74년 法大卒	1
포항북	한나라당	李秉錫	38기 AMP	1
포항남·울릉	"	李相得	61년 商大卒	4
김천	"	林仁培	46기 ACAD	2
영주	"	朴是均	3기 SGS	2
상주	"	李相培	62년 法大卒	2
고령·성주	"	朱鎭吁	74년 文理大卒	2
칠곡	"	李仁基	78년 法大卒	1
청송·영양·영덕	"	金燦于	12기 AMP	4
봉화·울진	"	金光元	63년 法大卒	2
창원갑	"	金鍾河	64년 文理大卒	5
창원을	"	李柱榮	74년 法大卒	1
진주	"	河舜鳳	64년 師大卒	4
김해	"	金榮駟	65년 法大卒	3
거제	"	金淇春	62년 法大卒	2
남해·하동	"	朴燾太	61년 法大卒	4
산청·합천	"	金容鈞	64년 法大卒	1
함양·거창	"	李康斗	73년 行大院卒	3
제주	"	玄敬大	64년 法大卒	5

서울대인 147명이 금배지 달았다

단기과정 36명 포함...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넘어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4월 25일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6대 총선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총 2백97명(정회원 2백44명, 준회원 53명)의 동문이 지역구로 출마하여 42.1%인 1백25명(정회원 1백명, 준회원 25명)이 당선된 영광을 안았으며, 비례대표 22명(정회원 11명, 준회원 11명)을 포함해 재적의원 2백73명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백47명(정회원 1백11명, 준회원 36명)의 동문이 선량으로 뽑혔다.

당선 동문 1백47명을 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77명, 새천년 민주당 50명, 자민련 13명, 민주국민당 2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나타났다.

출신대별 당선 동문 수는 법대 53명, 문리대 21명, 상대 11명, 사대 7명, 사회대 4명, 행대원 4명, 공대 3명, 경영대 2명, 인문대·약대·치대·경대원·사대원·신대원 각각 1명 순이다. (4면 당선자 명단 및 현황 참조)

당선된 횡수로 보면 초선 49명, 재선 44명, 3선 22명, 4선 17명, 5선 11명, 6선 3명, 9선 1명이다. 본회 고문인 金鍾泌(자민련 전국구)동문이 최고참(46년 사대 입학), 최다선(9선), 최고령(74세)으로 당선됐으며, 金民錫(민주당 영등포을·89년 社會大卒)동문과 元喜龍(한나라당 양천갑·89년 法大卒)동문이 최연소(36세)로 당선됐다.

또한 지난 15대 총선에 이어 鄭東泳(민주당 전주, 덕진·79년 人文大卒)동문이 최다득표자로(98,746표), 金孝錫(민주당 담

양,곡성,장성·72년 商大卒)동문이 최고득표율인 92.4%의 기록을 세웠다. 여성으로 金貞淑(한나라당·ACAD 27기)·林鎮出(한나라당·AMP 35기)·許雲那(민주당·71년 文理大卒)·姜淑子(민국당·ACAD 32기)동문이 전국구 의석을 확보했다. 특히 姜淑子동문은 부산에서 성형의과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보건대학원동창회 金秀哲회장의 부인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1백47명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하모임은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총선 당선 동문 현황보고에 이어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국의 통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운의 정치인들이다』며 『여러분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우리들의 조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1천5백명 교수와 1천1백명 직원, 3만1천명 학생을 대신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모교는 현재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모교 예산이 2천3백억원(기성회비 8백억원 포함) 정도인데 하버드·스탠퍼드·미시간·동경대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동문들이 단과대학 구별없이 서울대 졸업생, 서울대 동문이라는 일

체감을 갖고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본회 李姬鎬(대통령 영부인) 고문을 대신하여 韓光玉대통령 비서실장이 축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이번 선거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어려운 경선을 통해 선출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며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에 어떻게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점철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崔主鎬명예회장이 축배제의에 이어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鄭東泳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金在淳회장이 본회 부회장으로서 당선된 崔秉烈(한나라당)·鄭大哲(민주당)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 모교 李基俊총장이 최고득표율로 당선된 金孝錫동문에게, 본회 林光洙(공대동창회장)수석부회장이 최연소로 당선된 元喜龍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본회 李吉女(의대동창회장)부회장이 여성동문으로 당선된 姜淑子·許雲那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음대 朴世源교수가 「선구자」 「오, 나의 태양」 등을 축가로 선보였다.

한편 당선자 대표로 崔秉烈·鄭大哲·金學元(자민련)·鄭東泳·元喜龍·姜淑子동문 등이 의정활동의 포부를 통해 『여야 동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정치 풍토 확립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變)

金在淳회장 축사

敬愛하는 同門여러분! 第16代 總選에 當選하신 여러분!

20萬 同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當選을 衷心으로 祝賀합니다. 特히 本人은 남다른 感懷를 가지고 여러분의 國會議員 當選을 感祝합니다.

『民主政治에 관한 學說은 많지만 그것을 알려면 切절하고도 苛烈한 選舉를 실제로 치러보아야 한다. 選舉만큼 政治家에게 있어서 最善의 教育은 없다』고 한 Winston Churchill의 말을 여러분은 實感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을 것을 머리에 두고 「政治 指導者」란 어떤 것이며 어떠한가 하는가를 先覺者들의 말을 回想하면서 몇 마디 옮겨 보겠습니다.

○人間에게는 날 때부터 偉대한 사람, 낳고 나서 偉대해지는 사람, 죽은 뒤에 偉대했다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政治의 세계에서 어른과 어린애를 區別하는 것은, 어린애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겨냥하지만, 어른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希望한다.

○將軍은 戰爭에 勝利할 때까지만 생각하지만, 政治家는 勝利 뒤의 앞날도 생각한다.

○政治家는 누구나 歷史라는 裁判庭에 선 被告들이다.

○政治 指導者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德目은 너그러운이다. 너그러운은 그 人物의 그릇의 크기를 말한다.

○經營은 散文이지만 政治指導는 詩이다. 經營者는 過程을 취급하지만 政治指導者는 歷史의 進路를 취급한다.

○전쟁터에서는 한 번 쓰러지면 끝장이지만, 정치관에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쓰러진다. 逆境은 人生의 偉대한 教師이다.

○經營者는 破産하면 그만이지만, 指導者는 權力을 상실하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아무리 指導者를 自處하더라도 올바른 決定에 必要한 判斷力과 勘을 갖지 못한 者는 眼力이 부족한 失格者이다.

○亂世—動亂의 時代에는 最良(best)과 最惡(worst)이

同時에 나타난다.

○指導者를 偉大하게 하는 필수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偉대한 人物, 偉대한 나라, 偉대한 機會.

○만약에 失敗할 진 데는 큰 일을 하다가 失敗할 일, 勝利도 敗北도 모르는 小心한 者들과는 같은 隊列에 서지 말아야 한다.

○共產 獨裁政治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指導層에 기어오른 者는 危險한 敵手가 아니면 보잘 것 없는 내시와 같은 存在이리라.

○政治 歷程에서 判斷하기 어려울 때에는 언제나 별(星)의 位置를 確認하도록 하라. (「마하트마 간디」는 政治에 있어서 가장 큰 罪惡은 原則 없는 政治라고 했습니다.) 별—原則은 政治人의 葛藤이입니 다.

敬愛하는 同門여러분! 서울 大人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의 善良입니다.

우리 나라의 best and brightest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國民의 期待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人物이 있는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그 나라에 훌륭한 政治指導者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새로운 千年의 문턱에서 또 祖國의 統一이 視野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時點에서 여러분은 어느 時代의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幸運의 政治人들이십니다. 偉대한 때를 얻은 政治人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훌륭한 指導者가 나와 우리들의 祖國을 偉대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길 갈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던진 한 표 한 표의 主人公들, 당선들은 그들을 일일이 알 수는 없을 것이지만 投票所의 高牆 속에서 당신을 選擇한 善男善女들의 期待와 간절한 所望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神의 恩寵과 榮光이 있기를 나는 내가 믿든 하느님에게 合掌 祈願하면서 祝辭에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제18대 임원 상견례 및 상임 이사회

부회장 41명·관악회 이사 13명 선임장 받아

孫一根상임부회장·洪性大상임이사 선임



감사, 상임이사인 楊銀淑간호대 동창회장, 陸寶根자연대동창회장, 李信子미대동창회장, 李爽熙법대동창회장, 李禮植약대동창회장, 金正吉음대동창회장, 池憲澤치대동창회장, 禹德根경대원동창회장, 趙容直신대원동창회장, 朴英淑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장, 洪龍滌상대동창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동창회보 朴世熙·李炯均논설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인이 있는 곳에 조국의 장래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책임감과 자존심을 느껴야 한다』며 『모교와 조국을 위해 정성을 다해 자신있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제18대 부회장 41명·관

악회 이사 13명에게 선임장을 전달했으며, 안전검의에서 호선을 통해 동창회 상임부회장에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 관악회 상임이사에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프로필 18면>

崔主鎬 명예회장의 건배제외에 이어 李世震사무총장의 임원 악

력소개와 동창회 및 관악회 현황보고가 있었다.

이사 5,592명 추대

한편 본회는 지난 3월 17일 정기총회 이후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신임 이사 선임 작업을 통해 총 5,592명(유임 4,352명 포함)을 제18대 이사로 추대했다.

朴世熙·安國正·朴聖姬등문

본보 상임 논설위원에

비상임 논설위원 8명 위촉

본회는 지난 4월 10일 본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활동해온 모교 수학과 朴世熙교수, 한국경제신문 朴聖姬논설위원을 상임 논설위원으로 위촉하고, SBS 安國正제작본부장을 상임 논설위원으로 새로 추대했다.

또한 문화일보 金好俊편집국장, 모교 언론정보학과 朴明珍교수, 대한매일신보 李慶衡편집

국장, 매일경제신문 金鍾勳출판국장, 연합뉴스 徐玉植편집국장, 한겨레신문 高永才편집위원장, MBC 嚴基永보도본부장, 조선일보 姜天錫편집국장 등 8명을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영입했다.

이로써 본보 제작에 참여하는 논설위원은 총 26명(상임 7명, 비상임 19명)으로 증원돼 막강한 팀워크를 이루게 됐다. (變)

제18대 회장단

고 문 閔復基



고 문 金竣成



고 문 金道昶



고 문 朴浚圭



고 문 蔡汶植



고 문 河永基



고 문 金相廈



고 문 張禮準



고 문 白樂院



고 문 白文基



고 문 金鍾泌



고 문 李姬鎬



고 문 姜信浩



고 문 具平會



고 문 金泳三



명예회장 崔主鎬



명예회장 李基俊



회장 金在淳



상임부회장 孫一根



부 회장 林光洙



부 회장 鄭哲圭



부 회장 李聖秀



부 회장 李達雨



부 회장 尹勤煥



부 회장 朴晟容



부 회장 宋斗灝



부 회장 韓斗鎭



부 회장 徐廷和



부 회장 李爽熙



부 회장 李吉女



부 회장 金貞植



부 회장 閔丙峻



부 회장 李龍兌



부 회장 趙南煜



부 회장 張翼龍



부 회장 金鎮炫



부 회장 金柱津



부 회장 鄭宗澤



부 회장 李丙俊



부 회장 李金器



부 회 장 金讚淑 60년 齒大卒 청아치과병원 원장	부 회 장 孫京植 61년 法大卒 제일제당 회장	부 회 장 尹世榮 61년 法大卒 서울방송 회장	부 회 장 李相禹 61년 法大卒 서강대 교수	부 회 장 崔秉烈 64년 法大卒 국회의원	부 회 장 吳仁錫 62년 法大卒 재미동창회 회장
부 회 장 姜敏求 62년 行大院卒 유성개발 회장	부 회 장 洪性大 63년 文理大卒 상산학원 이사장	부 회 장 孫吉丞 63년 商大卒 SK 회장	부 회 장 韓光玉 60년 文理大卒 대통령 비서실장	부 회 장 卞柱仙 64년 師大卒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부 회 장 金學俊 65년 文理大卒 한국교총 회장
부 회 장 朴容晟 65년 商大卒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부 회 장 鄭大哲 67년 法大卒 국회의원	부 회 장 金基炳 67년 行大院卒 롯데관광 회장	부 회 장 金基鏞 68년 農大卒 퓨리나 코리아 대표	부 회 장 玄在賢 71년 法大卒 동양그룹 회장	부 회 장 洪錫炫 72년 工大卒 중앙일보 회장
재단법인 冠岳會 임원		부 회 장 李珉和 76년 工大卒 (주)메디슨 회장	감 사 方孝宣 55년 文理大卒 세무법인 성광사 회장	감 사 朴英俊 66년 商大卒 공인회계사	사 무 총 장 李世震 73년 法大卒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 사 李晟遠 58년 工大卒 청소년 도서재단 이사장	이 사 朴明潤 60년 保大院卒 한국청소년研 이사장	이 사 張世一 63년 工大卒 (주)일성 회장	이 사 尹美子 64년 美大卒 규수당 사장	이 사 南相午 65년 商大卒 모교 발전 기금 상임이사	이 사 金一燮 69년 商大卒 한국회계 연구원 원장
이 사 李龍二 69년 商大卒 영원무역 사장	이 사 李鍾基 73년 商大卒 상영무역 사장	이 사 鄭八道 1기 AIP (주)홍인 회장	이 사 金秉順 4기 AMP 한국구아노 이사	감 사 朴柱鐸 74년 商大卒 (주)수산스타 대표	<동창회 임원 겸임 동문은 중복을 피함>
동창회보 논설위원		金哲洙 56년 法大卒 탐라대 총장	金昌悅 58년 法大卒 한국일보 상임고문	朴世熙 59년 文理大卒 서울대 수학과 교수	林炯斗 61년 文理大卒 한국방송 위원회 위원
崔靑林 63년 商大卒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	李炯均 64년 文理大卒 한국PR협회 명예회장	南仲九 64년 文理大卒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	金鎮銅 64년 文理大卒 서울경제신문 주필	金好俊 65년 文理大卒 문화일보 편집국장	宋鎮赫 65년 文理大卒 중앙일보 논설고문
洪性萬 67년 文理大卒 경향신문 사장	丘月煥 67년 文理大卒 세계일보 편집국장	朴明珍 69년 文理大卒 서울대 언론 정보학과 교수	李成俊 69년 文理大卒 한국일보 부사장	安國正 70년 文理大卒 SBS 제작본부장	李慶衡 70년 文理大卒 대한매일신보 편집국장
金鍾勳 72년 農大卒 매일경제신문 출판국장	安炳璨 75년 新大院卒 경원대 신방과 교수	李元馥 66년 工大卒 덕성여대 예술대 교수	金仁圭 73년 文理大卒 KBS 뉴미디어센터장	徐玉植 73년 文理大卒 연합뉴스 편집국장	高永才 74년 文理大卒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嚴基永 74년 文理大卒 MBC 보도본부장	朴時龍 75년 農大卒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姜天錫 76년 社大卒 조선일보 편집국장	朴聖姬 77년 家政大卒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동창회 회장단 62명, (재)관악회 임원 16명(동창회 임원겸직 5명 포함), 동창회보 논설위원 26명. <고덕체는 신임>	

건강을 지킵시다

인공 임신중절수술과 산후조리

우리 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부터 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출산을 적게 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희구하게 됐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출산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이런 경우,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법적으로 제정된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특히 이 법에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후, 대개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부인과 질환과 임신 불가능상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 이유는 중절수술



姜信孝(70년 保大院卒)
동홍한의원장

중절수술을 한 후, 정상분만을 한 산모처럼 몇 주 동안 요양하라는 것은 아니나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또한 피임에 실패해 중절수술을 받은 후 재임신이 되는 경우가 1년에 많은 경우 2~3회까지도 있으니 피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친정어머니가 딸이 출산을 한 후에 많게는 1~2개월, 작게는 3주정도 해산구완을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따로 생겨 정상분

모들이 많이 찾는다. 산후조리를 한 후에도 잘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쓴다.

이로 옥수수 수염을 달고 호박을 삶아서 데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몸을 놓칠 수 있으니 상의하여 보다 정확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연락처 : 703-8008)



있거나 바뀐다는 이유로 후유증이 생겨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

추억의窓

약대 합격후 등록 늦어져 실격위기 직면 숫불 피워가며 「아스피린」 합성하기도

李甲烈(57년 藥大卒)한국제일제약(주) 사장

필자가 입학하던 53년도는 한국동란의 격전기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으로 통용되던 시기였다.

외갓집이 한의사 집안이었던 것이 藥과의 첫 인연이었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 약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당시 페니실린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서울대 약대를 지망, 운이 좋게 영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피난민 집결지인 부산에 도착, 등록을 하기 위해 약대를 찾았으나 학교는 「영도」에, 등록처는 대청동에 있어 비싼 택시를 타고 이 두 곳을 해매다가 마감 시간이 지나서야 접수처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다.

당시 접수처의 교무과 직원이 당황스러운 음성으로 『아니?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마감 후에 등록을 하느냐?』며 『하마터면 실격 처리될 뻔했다』고 말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약대는 정성분석, 약제학, 생약학, 유·무기약품 제조학 등 실습이 필수였는데, 한 시간이라도 결강을 하게 되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아 어느 과목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부산에서 고생스럽게 1학기를 마치고, 휴전이 되어 2학기부터는 서울 본교 校舎로 복귀해 강의를 받았다.本校에서는 제대로 실험도구가 마련된 곳에서 실습을 할 수 있었는데, 현미경 실습 때는 두 사람이 현미경 한 대를 배정 받았고, 제약 실습 때는 6~7명이 한 테이블에서 실습을 했다. 당시엔 숫불을 피워가며 「아스피린」을 합성했으며, 이렇게 실습을 하다보면 벌써 서산에 해가 지고 가운데 시약이 튀어 엉망이 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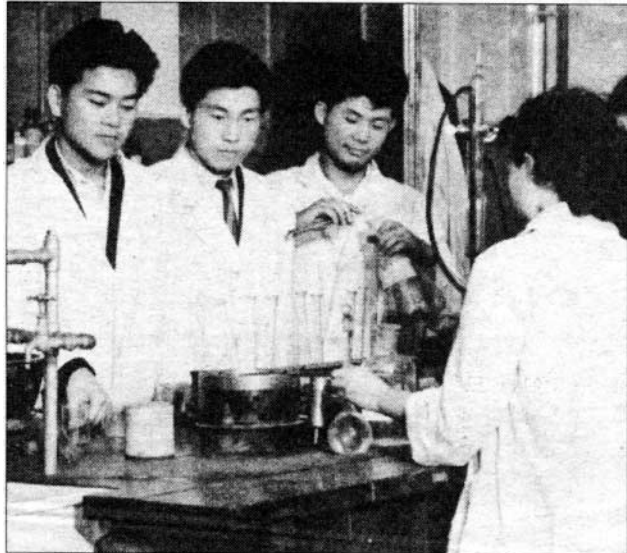
졸업 전 약사 국가고시를 치르는데, 그 해의 실습문제는 「정성분석 화학실습」이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252번이라는 번호만 적힌 200ml의 투명한 액체가 주어졌고, 그 액체내의 성분을 검출하는 시험이었다. 우선 검체를 3등분하여 세 번 시험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필자는 시작하자마자 「아연」이 검출되어 두 차례의 확인작업을 거쳐 답안지를 제출했다. 하지만 옆의 동기는 계통 분석을 끝까지 해봐도 아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안타까워했었다. 알고 보니 증류수였던 것이다.

의약인은 가장 대중과 접할 기회가 많은 직업인이고 또한 그만큼 사명감도 크다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제약계가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대인의 책임이 아닌가 하고 자성하고 싶다.

서울대는 그 동안 수많은 공인을 배출하여 이 나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자못 우리 서울대인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서울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더욱 분발하고자 다짐해 본다.



약제학 실습광경, 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

교육대학원 동창회 李成九회장



사회과학대학 동창회 李祐宰회장

「국어닷컴」 통해 한글 맞춤법 정보제공

지난 3월 24일 교육대학원동창회 신입 회장에 선출된 仁山 李成九(67년 敎大院卒·동남보건대학 학장)동문을 만나 근황과 동창회 운영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다른 대학(원)동창회에 비해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졸업생이 약 7백명 정도 됩니다만 모교 교육대학원이 75년 학칙 개정에 따라 폐지되고 전공과정이 대학원에 흡수되면서 더 이상 후배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회원 중에 약 3분의 1이 정년 퇴임한 것으로 추정되며, 10년쯤 후에는 회원들 대부분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고, 20년 후에는 생존해 있는 회원이 몇 명 안돼 동창회 존속 자체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른 동창회 운영 계획은.

『전공과정이 23개나 되어 다른 전공 출신들과는 안면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대학원의 특성상 상호 간 동문의식이 희박하여 소재 파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임기 내에 회원 명부를 재정비하고, 이사회 등 모임을 자주 개최하여 상호 친목 도모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동남보건대학을 소개한다면.

『74년 설립, 「예의를 바르게」 「學理에 밝게」 「기술을 익히자」라는 學訓 아래 관광영어·영어통역과, 응급구조과, 환경위생·관리과, 안경광학과, 미용과, 작업치료과, 식품영양·가공과, 유아교육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보육과, 컴퓨터응용과 등 19개 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80여명의 교수와 4천여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보건계열 대학으로 취업률이 90% 이상되어 매년 10대 1의 입학 지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간호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등의 학생들은 친절하고 예절바른 태도가 필요하기에 특별히 「생활예절」



이라는 과목을 교양필수로 정해놓고 가정·언어·행동·직장·문화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지요. 또 대학의 사명중 하나인 사회봉사 차원에서 방학중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인터넷 무료 교육을 펼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터넷 웹사이트 국어닷컴(www.gugeo.com)을 개설해 그 동안 정리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바로 쓰기 등에 대한 지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李회장은 63년 모교 사범대 졸업 후 서울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국어교육)를 취득했으며, 이화여고 교사를 거쳐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동양철학), 명지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어국문학)를 받았다.李회장은 교육부 전문대학 평가위원·중앙교육심의위원,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교대원동창회 이사·총무 등을 지내고 현재 국어교육과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變)

年富力 강한 동창회 면모 선보일 터

지난 3월 27일 사회과학대학동창회 신입 회장에 취임한 李祐宰(76년 社會大卒)시일무역 사장을 만나 그 동안의 활동과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모교 崔丁云교수에 이어 제2대 회장에 취임한 소감은.

『지난 98년 5월 문리대동창회와 상대 동창회에서 분리돼 새로 태어난 동창회라서 그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젊은 동창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작지만 내실있는 동창회가 되는데 제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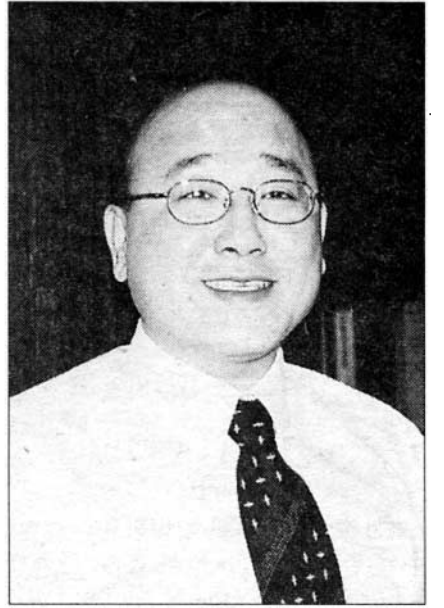
—역사가 짧은 만큼 특별한 동창회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無에서 출발한 우리 동창회의 경우, 활성화의 첫 단계는 조직화에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전임 회장은 동문들의 최신 정보를 담은 명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수석부회장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96학번까지 각 동기회에 이사를 선임해 1만여 회원을 모으는 구심점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마련해 후배들에게 작지만 정성어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동창회를 비롯한 각 동창회에서 회보를 제작, 배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읽혀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소식지는 누가 국회의원, 장관이 됐다는 거창한 소식보다 누가 문방구를 개업했다는지, 누가 식당을 열었는데 동문에게는 할인을 해준다는지, 이처럼 회원간의 유대감 증진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가 오가고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팩스, 웹사이트 등 예산이 덜드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시일무역은 어떤 회사인지.

『지난 92년 창업했는데 케이블(전선)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한 분야로 최근 각



광범한 업종입니다. 수출의 경우 유럽, 동남아, 호주, 중국 등 10개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첨단기술을 접목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며 그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기도 하지요. 규모는 작지만 이 분야에서는 1위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철학은.

『Give & Take, 신용, 실력입니다. 특히 내 것만 팔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무조건 제공하지요. 내가 기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동문 후배들에게 한 말씀.

『타대학과 달리 동문의식이 희박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최소한의 동문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서울대를 나왔다면 도움을 주고 받기 전에 「동문」이라는 호감과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變)

동정

수상

▲李相洙(49년 文理大卒·KAI ST 명예교수)=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李晚榮(52년 工大卒·모교 초빙교수)=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韓甲洙(56년 文理大卒·한국가스공사 사장)=지난 4월 21일 한국능률협회가 제정한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함.

▲姜晋求(57년 工大卒·삼성전기 대표)=지난 4월 17일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장영실 과학문화대상을 수상함.

▲任文淳(57년 農大卒·건국대 교수)=지난 4월 21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도서부문)을 수상함.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명예회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21일 한국능률협회가 제정한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함.

▲權肅一(58년 文理大卒·모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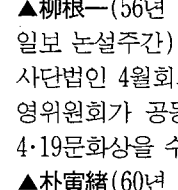
法大卒·인천일보 회장)=지난 4월 11일 서울언론인클럽이 제정한 제16회 언론상(향토언론



인상)을 수상함.



▲柳根一(56년 文理大入·조선일보 논설주간)=지난 4월 21일 사단법인 4월회와 4·19문화상운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4·19문화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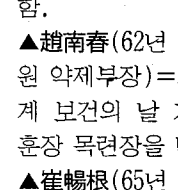
▲朴寅緒(60년 醫大卒·삼성제일병원장)=지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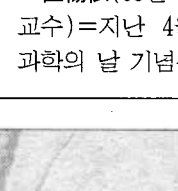
▲梁承澤(61년 工大卒·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



국 과학기술상(기술상)을 수상함.



▲趙南春(62년 藥大卒·모교 병원 약제부장)=지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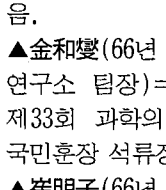


▲崔暢根(65년 工大卒·KAIST 교수)=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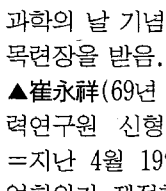
교수)=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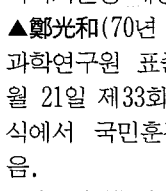
모란장을 받음.



▲鄭明世(65년 文理大卒·덕인 회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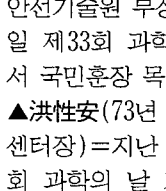
▲崔明子(66년 藥大卒·KIST 연구원)=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崔永祥(69년 工大卒·한전 전력연구원 신형원전개발센터장)=지난 4월 19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제정한 제7회 한국원자력기술상 대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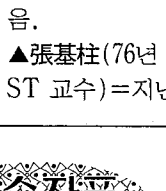
▲鄭光浩(70년 文理大卒·표준과학연구원 표준부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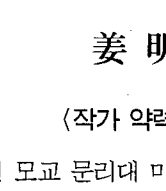
▲金正泰(70년 商大卒·주택은행장)=지난 4월 21일 한국능률협회가 제정한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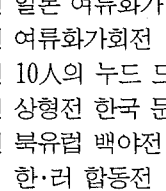
▲辛元基(72년 工大卒·원자력안전기술원 부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洪性安(73년 工大卒·KAIST 센터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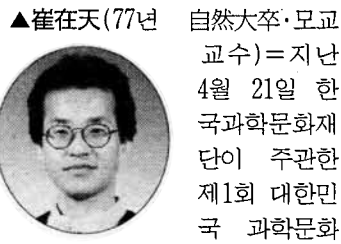


▲慶宗旻(75년 工大卒·KAIST 교수)=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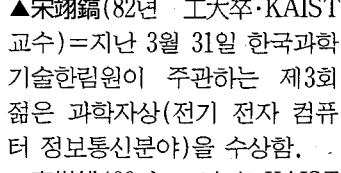


▲張基柱(76년 自然大卒·KAI-ST 교수)=지난 3월 31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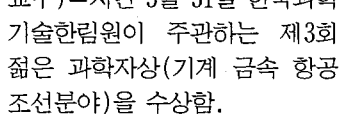
과학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한국과학상(물리분야)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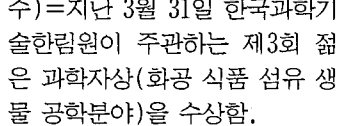
▲崔在天(77년 自然大卒·모교 교수)=지난 4월 21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도서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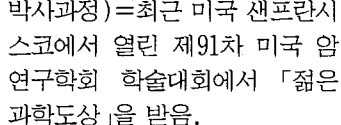
▲宋翊鎬(82년 工大卒·KAIST 교수)=지난 3월 3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젊은 과학자상(전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분야)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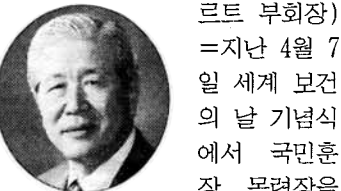
▲李赫模(82년 工大卒·KAIST 교수)=지난 3월 3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젊은 과학자상(기계 금속 항공 조선분야)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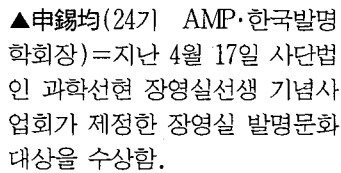
▲金在政(83년 工大卒·모교 교수)=지난 3월 31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젊은 과학자상(화학 식품 섬유 생물 공학분야)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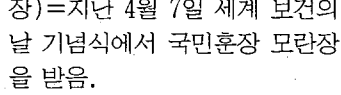
▲趙景秀(99년 大學院卒·모교 박사과정)=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9차 미국 암연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도상」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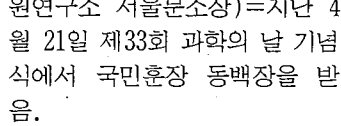
▲李銀鮮(21기 AMP·한국야쿠르트 부회장)=지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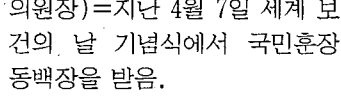
▲申錫均(24기 AMP·한국발명학회 회장)=지난 4월 17일 사단법인 과학선현 장영실선생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장영실 발명문화대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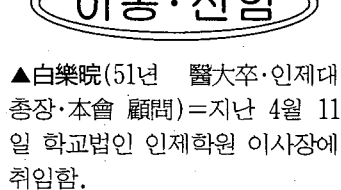
▲李章漢(37기 AMP·종근당 회장)=지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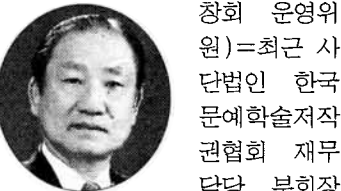
▲尹昌國(8기 AIP·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서울분소장)=지난 4월 21일 제33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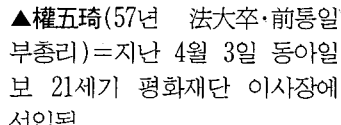
▲徐京善(27기 EPHM·동제한 의원장)=지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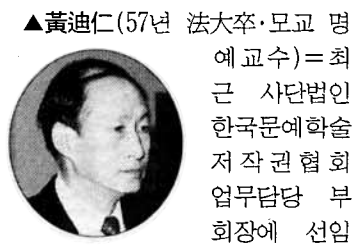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 顧問)=지난 4월 11일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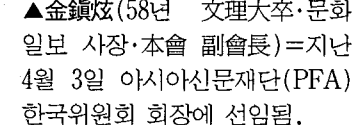
▲金濬浩(56년 法大卒·법대동창회 운영위원)=최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재무담당 부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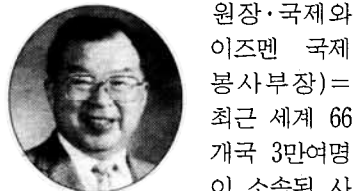
▲權五琦(57년 法大卒·前 통일부총리)=지난 4월 3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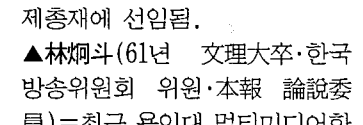
▲黃迪仁(57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최근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업무담당 부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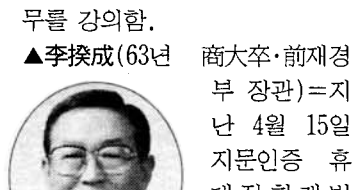
▲金鎮炫(58년 文理大卒·문화일보 사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3일 아시아신문재단(PFA) 한국위원회 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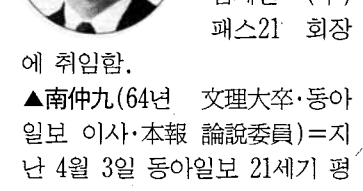
▲白承浩(59년 齒大卒·치과의원장·국제와이즈맨 국제봉사부장)=최근 세계 66개국 3만여명이 소속된 사회봉사 클럽인 국제와이즈맨 국제총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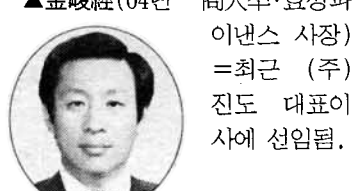
▲林炯斗(61년 文理大卒·한국방송위원회 위원·本報 論說委員)=최근 용인대 멀티미디어학과 겸임교수로 임명돼 방송 실무를 강의함.



▲李揆成(63년 商大卒·前재경부 장관)=지난 4월 15일 지문인증 휴대전화 개발업체인 (주) 패스21 회장에 취임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이사·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3일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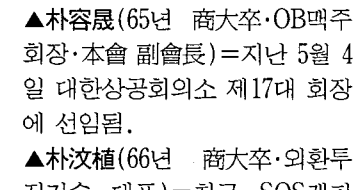
▲金峻經(64년 商大卒·효성과 이넌스 사장)=최근 (주) 진도 대표이사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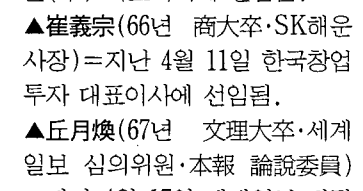
▲孫炳斗(64년 商大卒·전경련 부회장)=최근 한국창업투자 사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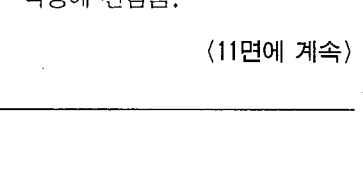
▲徐京善(64년 音大卒·한양대 음대학장)=최근 아시아작곡가연맹 한국위원회 회장에 선출됨.



▲朴容晟(65년 商大卒·OB맥주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5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 제17대 회장에 선임됨.



▲朴汶植(66년 商大卒·외환투자기술 대표)=최근 SOS캐피탈(주) 대표이사에 선임됨.



▲崔義宗(66년 商大卒·SK해운 사장)=지난 4월 11일 한국창업투자 대표이사에 선임됨.

▲丘月煥(67년 文理大卒·세계일보 심의위원·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17일 세계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11면에 계속)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50F, 캔버스에 오일, 2000.

미술작품

姜明洵 作

(작가 약력)

- △65년 모교 문리대 미학과 졸업
- △82년~2000년 개인전 8회
- △84년 일본 여류화가 교류전
- △85년 여류화가회전
- △88년 10인의 누드 드로잉전
- △92년 상형전 한국 문화원 초대전
- △93년 북유럽 백야전 한·러 합동전
- △94년 미술인 횡발 회원전
- △97년 작은 예수전
- △98년 파리 국제 미술전 20세기 종과 횡 표상전
- △99년 제1회 분당미술제
- △현재 종신 예술대 출강

(10면에 이어)

▲禹義濟(67년 商大卒·외환은행 부행장)=지난 4월 18일 외환은행 행장 직무대행에 선임됨.

▲鄭基鴻(69년 商大卒·금융감독원 부원장보)=지난 4월 14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선임됨.

▲玄在賢(71년 法大卒·동양시멘트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20일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위원장에 추대됨.

▲李 濬(71년 大學院卒·건국대 교수)=지난 3월 1일 건국대 공과대학장에 임명됨.

▲金春相(72년 工大卒·한국IBM 전무)=지난 4월 17일 인터넷 MBC(iMBC) 대표이사에 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12일 세계신문협회(WAN) 부회장 겸 집행위원회에 선임됨.

▲裴圭漢(74년 文理大卒·국민대 교수)=최근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에 취임함.

▲鄭鎮星(76년 社會大卒·모교 교수)=지난 4월 14일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보호 증진 소위원회 교체위원

에 선임됨.

▲李海成(77년 經營大卒·MBC 통일외교부장 직대)=지난 4월 18일 문화방송 보도국 경제부장

▲方英柱(79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모교 의대 암연구소 소장에 선임됨.

▲柳 津(83년 人文大卒·풍산 사장)=지난 4월 20일 풍산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郭炳贊(84년 人文大卒·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장)=지난 4월 21일 한겨레신문 정치부장에 선임됨.

▲金志洙(85년 法大卒·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최근 한국 코카콜라 법무담당 이사에 선임됨.

▲朴錫運(86년 法大卒·노동정책연구소장)=지난 4월 19일 관악민주포럼 창립 총회에서 초대 대표에 선임됨.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지난 4월 18일 한미경제협의회 회장에 선임됨.

▲趙錫來(11기 AMP·효성 회장)=지난 4월 20일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수석국제부회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



주년 기념식 및 詩歌選「사랑과 함께 하노라면」출판기념식을 가짐.

▲姜信浩(52년 醫大卒·동아제약 회장·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本會 顧問)=지난 4월 20일 호서대 鄭根謨(59년 文理大卒) 총장과 국가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함.

▲丘仁煥(54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문학과 문학교육 연구소장)=지난 4월 29일 동송동 방송대 세미나실에서 「창작교육의 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대표)=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사동-야쿠르트 아줌마」를

주제로 작품전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4월 27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車興奉(69년 文理大卒)장관을 초청, 「21세기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조찬토론회를 개최함.

▲尹鍾赫(57년 文理大卒·홍익대 명예교수·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지난 4월 8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 작가의 날」 기념 문학강연 및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함.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생활문화대학장·한국류학회장)=지난 4월 15일 건국대 상허기념 도서관에서 의류학회 제24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가짐.

▲李相禹(61년 法大卒·한일문화교육기금 이사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11일 동국대孔鶴明교수를 초청, 한·일 파트너십에 관한 문화강좌를 개최함.

▲宋丙洛(63년 商大卒·모교 부총장)=지난 4월 26일 한국발전연구원(이사장 安武赫·62년 大學院卒) 조찬강

연회에서 신경계 패러다임을 특강함.

▲韓達鮮(64년 醫大卒·한림대 총장·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준비위원장)=지난 4월 24일 은

천문화재단 이사장)=지난 5월 6일 여의도 재단 강의실에서 재단 창립 9

편집주간석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제16대 총선에서 서울대 동문 1백47명이 국민의 대변자인 選良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法治에 있고, 법치는 약속과 계약의 준수에서 출발합니다. 부디 약속을 지키는 선량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안겨주는 올곧은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회관에서 창립 세미나 및 총회를 개최함.

▲李典九(64년 農大卒·뉴욕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지난 4월 14일 뉴욕에서 미동부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인 「뉴욕골프센터」 확장기념 오픈식을 가짐.

▲姜明洵(65년 文理大卒·서양화가)=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갤러리 인데코에서 「고난 그 이후, 부활 전」이란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金玉鉉(70년 音大卒·한세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27일 영산아트홀에서 金東鎮(67년 音大卒·서울

시향 단원·클라리넷)동문 등과 함께 실내악 연주회를 가짐.

▲朴憲烈(71년 工大卒·중앙대 교수)=지난 4월 21일 영풍문고에서 저서 「지구촌의 환경과 인간」출판기념회를 가짐.

▲朴枝香(75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제국주의의 속성, 페미니즘과 인종 문제 등을 다룬 「제국주의」(서울대출판부刊)를 펴냄.

▲吳惠淑(75년 音大卒·세종대 겸임교수)=지난 5월 4일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니스트 朴惠瑛(83년 音大卒)동문의 반주로 첼로독주회를 가짐.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부사장·국제PR협회 한국 대표)=지난 4월 12일 신라호텔에서 미

국 리차드 에델만 사장을 초청, 「인터넷 마케팅 및 국가 이미지 브랜딩 전략」세미나를 가짐.

▲姜玄珠(83년 音大卒·경원대



강사)=지난 4월 2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白恩淑(87년 音大卒·전안외국어대 강사)·崔那敬(87년 音大卒·대진대 강사)=지난 5월 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짐.

▲趙允貞(87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4월 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화암트리오콘서트를 개최함.

▲李善伊(88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1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짐.

(정리=安興燮 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합니다.

*박경일(94년 獸醫大卒) 군·곽선아 양=5월 20일 15시30분.

*고성우(經營大 4년·사진) 군·김정진 양=5월 21일 14시.

*김정우(92년 社會大卒) 군·김연 양=5월 24일 12시30분.

*남도영(96년 社會大卒) 군·홍정아 양=5월 27일 14시.

*김정태(97년 工大卒) 군·한주희 양=5월 27일 15시30분.

*김학균(93년 人文大卒) 군·김연주 양=6월 3일 12시30분.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을 이용하시는 신랑·신부에게는 사이판 또는 제주도 호텔 무료숙박권을 드립니다.

국내 첫 「주택저당증권」 발행 기념식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李相永사장



좌로부터 金正泰·朴鍾奭·金允起·李相永·全哲煥·朴鍾翊동문.

지난 4월 10일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李相永(40기 ACAD)사장이 전경련회관에서 건설교통부 金允起장관, 한국은행 全哲煥(61년 商大卒)총재, 대한손해보험협회 朴鍾翊(68년 法大卒)회장, 모교 金信福(68년 師大卒)행정대학원장, 한국투신

협회 朴鍾奭(69년 商大卒)회장, 주택은행 金正泰(70년 商大卒)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의 주택저당증권인 「KoMoCo MBS 200-1」(발행규모 3,976억원)의 성공적 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變)

S.A.엔젤 클럽 제2차 발기인 모임

金一燮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 25명 선정



본회는 지난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S.A. ANGELS 클럽』 창립을 위한 실무간담회 겸 제2차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 孫京植(제일제당 회장)창립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임광토건 林光洙회장, 일동제약 李金器회장, 일진그룹 許鎭奎회장, 朴英俊공인회계사, 김&장 법률사무소 全康錫변호사, 법무법인 총정 崔祐榮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康錦實·林成澤변호사, 신한회계법인 이무석 이사, 신기술창업네트워크센터 사용철 간사, 본회 金宗準총무과장, S.A.ANGELS 클럽 준비위원회 鄭聖宰간사 등이 참석하여 5월 16일 개최될 창립총회 및 엔젤마트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S.A.ANGELS 클럽』의 운영위원장에 한국회계연구원 金一燮원장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에 동창회 뉴욕지부 金榮德회장, 재미동창회 李丙俊 명예회장, 吳仁錫회장, 한국PR협회 李炯均 명예회장, 규수당 尹美子대표, 마성상사

金閔鍾대표, 동창회 李世震사무총장, 삼성전자 陳大濟사장, 수산스타 朴柱鐸대표, 모교 李俊植신기술창업네트워크센터장, 메디슨 李珉和회장, 한국경제신문 朴聖姬논설위원, 모교 경영대 郭守根교수, 모교 유전공학연구소 金善榮교수, 강릉대 盧榮成교수, 동원창업투자 李鍾八부회장, 모교 공대 金炯周교수, 朴喜載교수, 朴容兌교수, 尹義竣교수, 高亨錫교수, 웹콜월드 朴龍鎬사장, 휴먼아이브리지 尹汀華대표, (주)홍인 鄭八道회장, 모교 벤처아카데미 金熙東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외부 업무협약업체 대표로 법무법인 지평 康錦實변호사가 엔젤클럽 지원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은 Seed Money의 중요성과 유치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논의를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큐베이션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엔젤클럽에서 옥석을 구분하여 진정한 엔젤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엔젤, 성공할 수 있는 벤처라는 모토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燮〉

믿을 수 있는 Angel·성공할 수 있는 Venture

S.A.ANGELS 클럽 창립총회 겸 제1회 엔젤 마트 개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서울대 신기술 창업네트워크센터」가 업무제휴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의 광범위한 기술적 자원과 동문들의 광범위한 국내외 인적 인프라를 결합하여 엔젤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S.A.ANGELS 클럽」이 첫 항해의 돛을 올립니다.

서울대 창업보육센터내의 83개 벤처기업(2000년 4월 현재)과 서울대 실험실 벤처 20여개를 비롯한 동문들의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동문들로 구성되어진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자금지원, 경영지원을 통해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Angel 투자분의 일정 부분을 기부받아 벤처기업 육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익 자금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엔젤·성공할 수 있는 벤처」네트워크 시스템인 「S.A.ANGELS 클럽」의 창립총회와 엔젤마트에서 새로운 개척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엔젤마트 참가예정 업체

	업체명	프로젝트(아이템)	대표		업체명	프로젝트(아이템)	대표
1	컬처 메이커	크로버 태권도 네트워크	이승환	6	(주)케이앤아이테크놀	주문신발 생산 시스템	이건우
2	피츠넷	자바기반의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	송병준	7	성진드림 시스템(주)	주얼스톤 개발 주얼관람개발·생산	홍성철
3	스페이스로보틱스	소형 항공기 제어용 자동항법 시스템	조금배	8	21세기 벤처넷	•웹용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빌더-홈페이지 제작 시스템 •웹 도우미	김동현
4	IMNet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손남수	9	블루넷	•인터넷 마케팅 •레블루션 tool	장형진
5	한국솔루션센터(주)	테크니컬 아키텍트 모델링 한-C.Q(보완) 솔루션 개발	박상범	10	(주)제일네트워크	Korea On-line Service 네트워크 설치 (리눅스 서버 개발·생산)	김동훈

일 시 : 창립총회 2000년 5월 16일(화) 11:00

엔젤마트 2000년 5월 16일(화) 13:00~16:00

장 소 : 서울대 국제컨벤션 센터(낙성대 방향 호암교수회관 뒤편) ☎ 871-4053~5

※ 엔젤마트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 702-2233 번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거나 E-mail (saangels@sa-angels.or.kr 또는 saac@sa-angels.or.kr)을 통해 참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http://sa-angels.or.kr>에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S.A.ANGELS 클럽 창립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金在淳
위원장 孫京植



杜甫 草堂에서 느낀 행복의 조건

元鍾禮(77년 人文大卒)가톨릭대 교수



지난 2월 23일에 둘째 딸아이와 함께 중국 사천의 성도에 있는 두보의 초당에 갔었다.

보슬비가 줄곧 내리는 남부 중국은 계림에서나 성도에서나 어두운 구름 아래 안개가 짙은 탓인지 대낮에도 어둡했다. 절반은 이미 冥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둡고 하늘도 무척 낮았다. 게다가 무척 추웠다. 음습한 남부 중국은 올해 「라니냐 현상」 탓으로 유독 춥다고 했다.

내가 성도를 찾은 이유는 사천대학의 주유개 교수를 만나서 중국 선종의 문화 배경 속에 지어진 시에 담긴 특별한 시 정신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보와 소식의 유적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두시연해」를 읽으면서 접하게 된 두시와 두보는 중문과의 학부 과정을 공부할 때에도, 석·박사 논문을 쓸 때에도 자주 생각해야 되는 인물이었다. 석·박사 논문이 두시를 숭상한 명대 前後七者の 시론을 연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보」라는 이름은 심지어 나와 동행한 우리 지해도 스스럼없이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였다. 내가 몇 년 동안 두보 시에 관한 논문 몇 편과 두보의 시와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글(「중국시와 시인-당대편」) 한 편을 쓰는 동안 딸애들과 대화를 할 때 자주 그 이름을 입에 올렸기 때문이었다. 주교수는 다음날 사천대학 중문과 교수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고, 그날은 우리끼리 두보 초당을 찾아갔다.

집을 떠난 지 이미 닷새가 지난지라 지

해는 벌써 「집에 가자」거나 자기 먼저 돌아가겠다고 성화를 해댔다. 중국 음식이 싫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 계림에서부터 중국 음식이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루씩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 억지를 썼다. 하는 수 없이 성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남방항공공사 사무실에 들러 하루 앞당겨서 다음 목적지인 남경으로 가기 위한 수속을 마쳤다. 점심을 먹고 나서 택시 편으로 두보 초당으로 향했다.

두보는 759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48세이던 해 연말에 가족을 데리고 안록산의 난을 당해 살기가 어려워진 장안을 떠나 성도에 도착, 서쪽 교외에 위치한 浣花溪 연변의 草堂에서 묵었다. 초당사는 남조 宋 孝武帝 때 지어진 규모가 큰 절이었다. 이 절에 묵다가 이듬해 봄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는 자기 집을 지었다. 성밖 서쪽 七里, 초당사로부터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200년 묵었다는 녹나무(栢樹: 일설 매화나무) 밑 황무지를 물색하여 2~3개월에 걸쳐 모옥 한 채를 지었다 한다. 그것이 바로 두보 초당이었다. 이 집의 동쪽에는 완화계와 萬里橋가, 남쪽에는 碧雞坊, 百花潭이 있었다. 두보는 친구들에게서 복숭아나무·오리나무·실대나무(綿竹) 등을 많이 얻어 이 집에 심고, 이 집을 草堂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가 여기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물에 끌려, 자연을 노래한 시, 예를 들면 「살 곳을 정함(卜居)」과 「집이 이루어지다(堂成)」 등의 시는 성당 자연시와 같은 牧歌風을 띠고 있다.

입장표를 사서 보슬비가 어둡게 내리는

가운데 두보 초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하지는 않았다. 그곳에 먼저 갔다 온 분들로부터 그곳은 초당이라는 말이 전혀 당치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우리나라 민속촌만큼 수없이 많은 초가집 집채들이 즐비하게 서 있을 것으로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두보 초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먼저 눈에 들어오는 옛날 관공서 같은 양식의 굉장한 집채들은 그의 시혼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세에 지어진 기념관적 성격의 것들이었다. 그 뒤의 아주 깊숙한 곳에 숨듯이 자리 잡은 모옥 한 채가 그가 살던 초당이었다.

그 초가집은 침실 한 칸, 서재 한 칸 부엌이 하나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 나라 남쪽 지방의 一字形 가난한 초가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모옥 안의 방에는 두보가 썼을 것이라고 상상케 하려는 듯 오래된 침대와 낡은 책상 등의 집기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 침대를 보자 엉뚱하게도 나는 두보가 장안에서 고생할 때에 때늦은 폭우성 가을 장마로 방으로 물이 들어와 침대에 곰팡이가 돌고 방안에 물고기가 돌아다녔다던 말이 생각났다.

모옥 그 자체야 감상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두보 초당 전체는 나무도 많고 꽃도 있었다. 연못도 두엇 있는데, 아직 추운 날씨지만 여러 가지 꽃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고 특히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한 매화가 피어 있는 것이 기분을 좋게 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매화 분 하나를 가꾸며 매향에 특별한 애호를 가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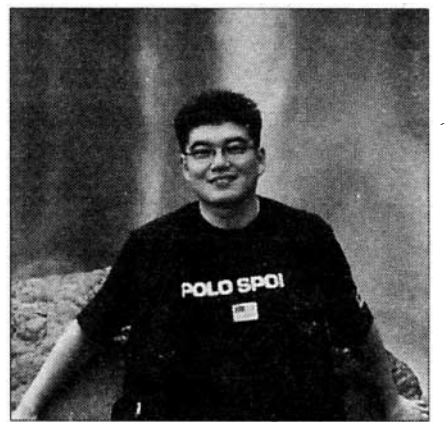
었기 때문에 비를 맞고 서있는 매화나무들 밑에서 자주자주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기를 절대 거부하던 지해도 그곳에서는 몇 번 내 권에 응했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카메라를 분실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감격에 겨운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하나도 없다. 어떤 매화는 그 연분홍 꽃가지의 모습이 연못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 연못이 깨끗하지 않은 탓인지, 내 마음이 우중충한 탓인지, 물에 비친 매화꽃 그림자가 황홀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가에 옮겨다심은 치자꽃 그림자가 강물에 비치는 것을 보며 「무정하게도 너를 옮겨 심었더니, 강 물결에 비치어 귀하구나!」하고 읊었던 두보의 시심이라면 아마도 이런 정도만 보고도 감격에 사무쳐 술을 거나하게 퍼마시고 또 시 한 수를 지었음지도 모른다.

이 정도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충분히 반하지 않는 나와 이만 못해도 기분이 달아올라 시 한 수를 써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두보, 이 둘 사이에는 평상인과 시인이라는 차이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주변을 보면, 행복한 여건에 처해 있어도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가족끼리 심리전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불평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과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동물사랑은 인간사랑의 실천이다

朴壽元(91년 獸醫大卒)서울동물의료원장



수의학을 전공, 임상수의사로서 동물들과의 생활이 나의 일과가 되어버린 지도 벌써 1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매일 매일 새로운 동물과 그들 보호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생각들은 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일 것이다.

나는 서울시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동물은 주로 개와 고양이이다. 가끔 야생동물들(주로 서울 근교에서 발생하는 기아상태 또는 사고로 다친 야생조류들)도 나의 진료대상이 되곤한다. 그 동물을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은 다양하나 공통점은 모두 동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동물이 아직까지는 「개」여서 인지 몰라도 내가 주로 만나는 대상이 「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애완동물이 「개」인 것 같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의 정서 속

에는 아직까지 가장 천시(?)받는 동물도 「개」인 것 같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나쁜 말이나 상황을 개에 빗댄 말들이 많고 또한 개를 식용으로 하는 풍습 때문일지도 모른다. 개를 식용으로 하던 풍습은 옛날 어렵던 시절, 소나 돼지는 집안의 생계수단이자 재산이었고 집을 지켜주는 거위는 먹을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던 개를 동물성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개를 식용으로 하는 이유는 단지 보신 문화일 뿐이다. 이 때문에 아직 일부에서는 개를 천시하며 생명을 가진 개체로 보지 못하고 단지 음식수단이나 하찮은 미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보신할 수 있는 음식들과 약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고 집을 지켜주는 첨단 방법시스템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오래되고도 가까운 생명체인 개를 식용이나 집 지켜주는 동물로서가 아닌 친구로서, 식구로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개가 애완동물(pet)이 아닌 동반동물(companion animal)로 인정받고 있다. 나의 병원에 오는 개중에도 이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그 가정의 가족으로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고 사랑을 가르쳐주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옛말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 있다. 적어도 개는 한번 가족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버리지도 배신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충직한 동물이다.

가끔 마스크를 통해 주인을 찾아 수백 리를 찾아오는 개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이걸 단지 귀소 본능만이 아니라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나의 경험상으로는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단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은 생각이 너무 교활해진 까닭에 잊어버린 참사랑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동물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이 잊고 있던 참사랑을 찾고, 이것을 다른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인간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사회로 발전하지 않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맨 위에서 누리는 인간 중심세상을 신에게 선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동물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보호해주라는 책임 또한 주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새 천년,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동물사랑을 통해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화제의 동문
Talk

충북대 金石日교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 선사

국내 최초 인터넷 읽어주는 「웹아이」 개발

이젠 시각장애인들도 正眼人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소프트웨어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대 정년 보장 교수로 승진한 金石日(75년工大卒)동문이 개발한 시각장애인용 웹브라우저 「웹아이(Web eye)」는 그 동안 인터넷 세상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련해준 것이다.

어려서부터 전기공학 분야 등에 관심이 많았던 金동문은 모교 지원 당시 학과 선정에 전혀 망설임 없이 전기공학과를 선택했다고 한다. 재학시절 3선 개헌 반대 등 정치적인 굽직한 이슈 등을 수차례 경험한 金동문은 이로 인해 좀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도 못내 아쉬워했다.

金동문이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충북대에 부임하던 90년 12월경, 청주맹아학교의 김승연 교장을 만나면서부터다.

당시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김승연 교장이 金동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껏 사회로부터 받아만 왔던 혜택들을 이젠 사회에 환원할 차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金동문은 이를 흔쾌히 수락, 곧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했다.

그후 金동문은 시각장애인용 워드인 「소리문」과 워드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점자로 번역되어 전자 점자로 나타나는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점한」 등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점자로 만들어진 문서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한 제품인 「역점역」 역시 그의 개발품이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제

품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온 결과,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70~80%가 金동문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金동문이 최근 개발한 「웹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주요인은 바로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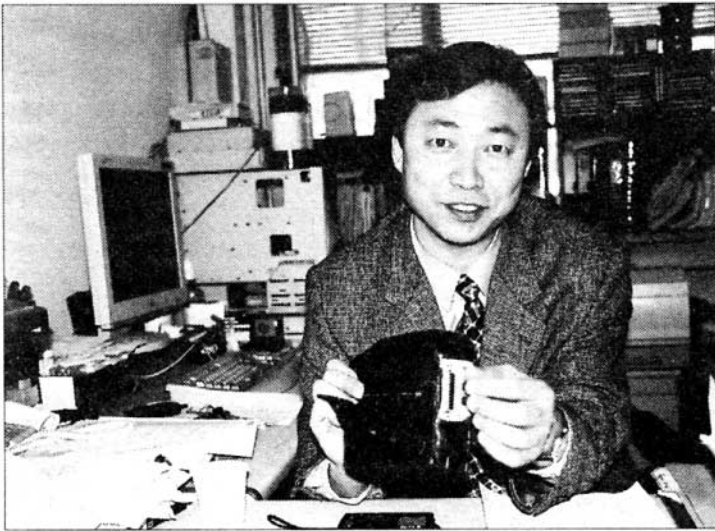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 미국 IBM社의 「홈페이지 리더」 등 세 종류의 시각장애인용 웹브라우저가 개발되어 있지만 PC통신이나 E-mail 등의 기능을 가진 것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웹아이는 인터넷과 동시에 E-mail, 파일전송(FTP), PC통신 등이 가능해 외국의 소프트웨어보다 기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웹아이는 스위치를 커서 모니터에 윈도우 화면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모든 것이 음성으로 지원된다. 특히 글자 단위라든지 단어 단위, 줄 단위 등으로 읽어주므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기능의 대부분이 단축키로 되어 있어 남의 도움이 거의 필요 없다.

金동문은 웹아이의 개발로 「그동안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들도 이제는 윈도우 환경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금융업무,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동문은 (주)e-Trek Infodigm社와 공동으로 윈도우용 스크린 리더인 「아이즈(Eyes)」와 「웹아이」를 통합한 시각장애인용 인터넷 통합 솔루션 「아이즈2000(EYES2000)」을 새롭게 개발해 최근 공개 버전을 선보였으며, 공개 버전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평가를 토대로 보완 작업을 거쳐 상용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金동문은 아내 明在淑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차남인 世準군도 金동문의 뒤를 이어 현재 모교 전기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이다. (연락처: 0431-261-2328) 〈信〉



④6 우방무역(주)

국내 섬유·플라스틱 산업 새 바람 일으켜

75년 설립, 공격적 경영으로 새 천년 승부

1960년대 국내는 섬유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선정,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원가로 다량 생산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갔다.

특히 선진국 유수의 관련 전문 회사 및 전문가들을 방문, 접촉해 보다 발전된 최신의 정보 및 기술 자료를 도입, 국내 섬유 산업의 기술 향상을 가져왔다.

이에 尹炳和(62년工大卒)사장은 당시 섬유 산업의 중요성과 시장성을 발빠르게 인식, 지난 75년 우방무역을 설립했다.

최신의 산업 설비 및 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신



尹炳和 사장

우방무역의 주요 공급업체로는 태광산업, (주)새한, 일신방직, (주)전방, 대한

범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尹사장은 그 후 섬유 산업 설비뿐이 아닌 플라스틱 산업 등에도 두각을 나타내며 점차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방직, 동일방직, SK 케미칼, (주)성안, 효성, 삼양사, 코오롱 등으로 국내 섬유, 플라스틱 관련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방무역이 이렇듯 섬유, 플라스틱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회사간의 신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의 선진화, 설비의 자동화, 혁신화 등을 이룩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를 토대로 우방무역은 품질의 고급화와 동종업계의 차별화 전략을 선언,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업계의 대표로 자리 매김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수출의 증대는 물론 수입 대체 효과를 극대화 시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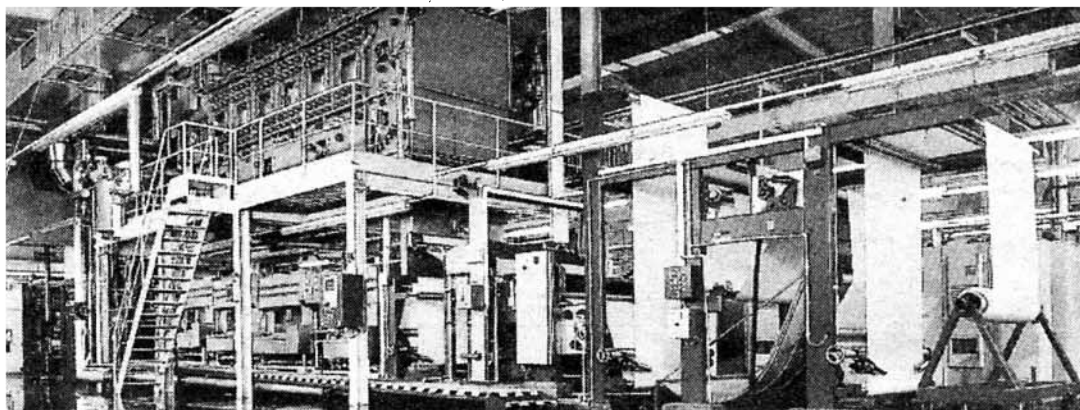
우방무역의 주요 수입업체로는 이탈리아의 MARZOLI社와 SALMOIRAGHI社, 벨기에 BARCO社, 독일 BRUECKNER社, 스위스 BENNINGER社, 네덜란드

FUJI SEAL社 등으로 최고의 제품만을 선정,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우방무역은 꼭 필요한 최첨단의 혁신 설비, 성숙화 시스템 및 기술을 최신의 가격으로 도입, 소개함으로써 부담한 거래를 배제시킴은 물론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적극적인 추진력과 공격적 경영으로 우방무역을 이끌어온 尹사장은 지난 66년 노동청장 표창, 92년 대통령 표창, 98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우수한 관련 공급社들과 20여년이 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올 정도로 그 신의가 두터운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자동화, 성숙화된 설비를 집중 발굴, 소개해온 우방무역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천년 섬유 및 플라스틱 산업의 최고봉이 되기 위해 현재 발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연락처: 569-3535) 〈信〉



스위스 Benninger社에서 수입하는 호발, 정면, 표백기



대치동에 위치한 본사 전경.

환경대학원

새 회장에 李廷植동문 선출



全회장(左)이 전임 俞炳林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全錫洪)는 지난 4월 19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全相伯·鄭淸助 부회장, 모교 黃琪源·金成洙교수 등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헌신한 丁奎榮 명예회장과 전임 환경대학원 俞炳林원장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신입회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李廷植(72년 行大院卒·국토연구원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朴憲注·全洪奎동문을 선임했으며, 감사에 洪誠杓·李東洙동문을 선출했다.

대학원

새로 발간한 동창회보 배포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는 지난 4월 20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화학연구소 11층에서 金道昶전임회장, 모교 洪承五전임대학원장, 金彩潤교수 등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금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수가 5만명이 넘었지만, 다양한 전공분야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동문들의 결집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동문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동창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교 禹鍾天대학원장은 『BK21 사업에 4백여명의 교수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대학원의 위상에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되며, 앞으로 대학원이 국제적인 모습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 99년도 사업·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故 裴載湜전임회장의 명복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새로 발간된 동창회보를 배포했다.

(表)

프로필

신임 孫一根상임부회장

한국일보 孫一根상임고문은 32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모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55년 서울타임즈 편집국장을 시작으로 언론계에 발을 디딘 후 한국일보 비서실장, 조사부장, 기사심사부장, 논설위원, 도쿄지사장, 출판국장, 통일문제연구소장, 백상기념관장 등을 역임했다.

92년 9월부터 본보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동창회 활성화는 물론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에 진력해온 孫동문은 현재 대한언론인회 이사, 전국 孫씨 화수회 회장, 법대동창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신임 洪性大상임이사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 이사장은 37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남성고와 모교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했다. 64년 종로학원 강사로 출발하여 72년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도서출판 성지사, 76년 월간 수학세계를 창립,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그 이후 명봉도서관, 상산고교를 설립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부회장, 모교 기성회 부회장,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 남성중고동창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협력부문)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 월간 사학회보 발행인,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志 및 基金獎學會

出捐同門과 篤志家 永世不忘錄

특지장학회는 1구좌에 5천만원을 출연받아서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출연자가 직접 선정한 장학생에게 출연자의 명의로 영구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성 있는 유가증권 및 부동산 출연과 遺贈도 가능합니다.

特志 및 基金獎學會 出捐同門과 篤志家 永世不忘錄	
이웃사랑의정신을 계승하여 장학재단인 「관악회」를 설립하여 장학금으로 관악회 장학재단에 기부한 동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의 운영은 관악회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장학금의 지급은 관악회 장학재단에서 담당합니다. 관악회 장학재단은 관악회 장학재단에 기부한 동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악회 장학재단은 관악회 장학재단에 기부한 동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洪性大 (文理大) 特志 6000원	李吉女 (醫大) 特志 2000원
金讚淑 (商大) 特志 1000원	亞南(金世南) (法大) 特志 1000원
田洛星 (文理大) 基金	張世一 (工大) 特志 1000원
朴柱錫 (商大) 特志 1000원	楊銀淑 (商大) 特志 1000원
商佛會 (商大) 基金	鄭八道李基偉 (AMP) 特志 2000원
李世震 (法大) 基金	李金玉·黃海根 (工大) 特志 1000원
李道卿·李燦熙 (農大) 基金	李鍾基 (商大) 特志 2000원
朴明潤 (國慶大學) 特志 1000원	化學科 同窓會 基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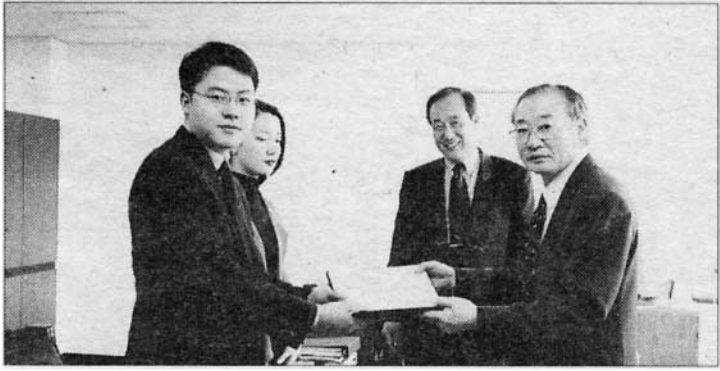
鄭哲圭 (工大) 特志 1000원	金秉順 (AMP) 特志 2000원
-------------------	--------------------

장학금 출연자 永世不忘錄

특지 및 기금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3월 30일 동창회관 4층 동창회 사무실에서 모교 尹桂燮학장, 李東琪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99년도 동창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행사에서 李庭蘭(마케팅·2년)양과 金裕俊(재무관리·1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상과대학

최우수 논문상 제도 제정키로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4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단법인 向上장학회 명칭을 「서울商大 向上장학회」로 변경하고, 5월 16일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회, 10월 3일 등산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최우수 논문상 시상제도를 신설, 세계적인 연구논문을 발표한 동문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회칙 제6조(임원과 임기)를 개정하여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단 월례회를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정간호수습과정

王明子·權惠正교수 특강 펼쳐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英淑)는 지난 4월 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제1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許貞禮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간호대 李恩玉학장과 모교 金錦順교수를 비롯한 동문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 경희대 간호학과 王明子교수가 「가정간호에 한방간호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동남보건전문대 權惠正교수가 「편마비환자의 가정운동 치료」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편 2000년 사업계획안 보고 후 안전심의를 통해 10월경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응용화학부

신임 회장에 林武炫동문 선임



응용화학부동창회(회장 沈利澤)는 지난 4월 24일 센트로 호텔에서 林光洙공대동창회장, 馬景錫호마기술 사장, 鄭哲圭(본회 부회장)대성고무화학 회장 등을 비롯해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林武炫(대주정밀화학 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李本守(인하대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에 吳東圭(한모기술 부사장)동문, 간사장에 盧重錫(LG-Caltex정유 기술연구소 이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안동지부

춘계야유회 개최

안동지부동창회(회장 裴元煥)는 지난 4월 13일 「知禮藝術村」에서 춘계야유회를 가졌다.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재의 명소로 널리 알려진 「知禮藝術村」의 경관을 감상한 동문들은 이어 知禮藝術村 김원길(시인)촌장으로부터 예술촌의 내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表>

치대 14회

졸업 40주년 기념 조형물 기증



치대14동기회(회장 李大源)는 지난 4월 14일 웨라튼워커히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楊熙一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내빈 소개에 이어 金泳勳(김영훈치과의원장)동문이 「우리들의 남은 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축사를 낭독,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열띤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李春根·金用琯·張完植·金周煥·鮮于良國·金仁哲 前모교 교수를 비롯해 池憲澤치대동창회장, 모교 高在丞학장, 金讚淑(본회 부회장)청아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同會는 다음날 모교 연건캠퍼스를 방문, 치과의사의 윤리 내용이 새겨진 조형물 기증식을 가졌으며, 기념 식수를 했다.

미대 60회

입학 40주년 행사

미대60동기회(회장 文吉子)는 지난 4월 1일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에서 입학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대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출신의 동문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교에 대한 추억과 아울러 동문 상호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ROTC 동문회

洪宗浩회장 선출



ROTC동문회(회장 裴錫彰)는 지난 4월 18일 삼성동 소재의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무처 총괄부장에
金巡圭동문 임명

본회 사무처는 지난 5월 1일자로 회원부 간사장 겸 총괄부장에 金巡圭동문(사진)을 임명했다.

72년 사범대 일반사회과에 입학한 金동문은 74년 문리대 국사학과로 전과하고 군복무를 마

이날 총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洪宗浩(66년 文理大卒·대진공영 사장)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행대원 7회

鄭東俊동문 강연

행정대학원7동기회(회장 鄭英謨)는 지난 4월 19일 동창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鄭東俊(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동문이 「지식기반사회의 사람평가와 대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 전원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어느 조각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전

미대 조소과 출신으로 이루어진 모임인 어느 조각 모임(총무 李東庸)이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종로 관훈동 소재의 관훈갤러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을 가졌다. <信>

친 후 79년 인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대우자동차 과장, 금성사 차장, 금정통상·일송관광 대표, 국영테크 이사, 덕영시스템 상무 등을 역임했다.

林明奎간사장

의원 면직

97년 1월 13일자로 회원부 간사장에 임용돼 3년동안 동창회 회원 관리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온 林明奎(97년 人文大卒)동문이 지난 4월 29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직했다.

모임예정

치과대학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池憲澤)는 5월 19일 오후 7시 치과대학 제2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2-7082)

농과대학

농과대학동창회(회장 尹勤煥)는 5월 20일 정오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331-290-2106)

공과대학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5월 21일 오전 9시 공과대학 엔지니어하우스 준공식 및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77-0568)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동창회(회장 金尙均)는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모교내 「버들골」에서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6456)

명경회

경성여자사범학교동창회(명경회·회장 南芳元)는 5월 23일 오후 1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543-8266)

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5월 25일 오전 7시 30분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6912)

사범대학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崔泰祥)는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 2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20-8116)

건축학과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洪性夫)는 6월 3일 오후 3시 학군단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7050)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郭永勳)는 6월 4일 오전 10시 공대 43동 대형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880-7358)

농화학과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李賢秀)는 6월 11일 오전 10시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331-290-2400)

모교소식

모교 회장 교체 추진

교문 등 상징물도 재정비

모교가 개교 54년만에 학교 상징인 회장(사진)과 마크 등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상징물 변경 소위원회(위원장 韓永愚)를 구성, 국제화 시대에 맞춰 모교만의 독특한 문화와 학풍을 드러낼 수 있도록 회장 등 각종 학교 상징물을 재정비하는 대학이미지 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등근 월계수관 내에 펜과 횃불을 엮갈리게 걸쳐놓고 라틴어로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글을 새겨 넣은 학교 회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회장과 비슷한 국적불명의 상징물이라는 지적이 학내외에서 여러차례 제기돼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또한 「국립서울대학교」의 머릿글자인 ㅊ, ㅌ, ㅍ을 따서 만든 대학 마크 및 이를 이용한 교문의 철구조물, 校木인 「느티나무」와 校鳥인 「학」도 바꾸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방침이다.

생활과학대학장에 崔正和교수

환경대학원장에 李正典교수

의대학장에 李宗郁교수 취임



崔正和 학장

지난 3월 13일자로 생활과학대 학장에 의류학과 崔正和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崔학장은 68년 농대 농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나라



李正典 원장

여자대학에서 석사, 고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농대 농가정학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4월 1일자로 환경대학원



李宗郁 교수

지난 4월 1일자로 환경대학원

장에 환경계획학과 李正典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李원장은 71년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아주립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환경계획학과장, 환경계획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지난 4월 11일자로 제25대 의과대학 학장에 비뇨기과학교실 李宗郁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李학장은 63년 의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68년 석사학위, 8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국제비뇨기과학회 한국대표, 서울시립보라매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버스로 등교

관악경찰서 지원 받아

모교는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부터 캠퍼스까지 재학생들을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관악경찰서(서장 金重確, 80년 法大卒)로부터 기동대 버스 3대를 지원받아 순환 운영키로 했다.

「담장차」로 불렸던 경찰 기동대 병력수송 차량이 아침마다 등교전경을 치르는 재학생들의 든든한 발 역할을 해줌으로써 학생과 경찰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야간강의제 도입

2학기부터 오후 9시까지

모교는 오는 2학기부터 현행 오전 9시(일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학부 강의 시간대를 오후 9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성적인 대형강의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미술관 건립 추진

2002년 관악캠퍼스내 개관 예정

모교는 국내 종합대학 중에는 처음으로 2002년 현대미술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관악캠퍼스의 명물이 될 미술관은 상설전시실 2실(150평), 기획전시실 3실(400평), 수장고 300평, 작업실 100평, 강당 200평과 세미나실, 영상자료실 등 총 1400여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 96년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미술관 설립을 기획,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50억원을 기부받았으며, 현재 7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연내에 관악구청과 실무 협의가 끝나면 착공할 계획인 이 미술관은 설계에만 9억8천만원이 소요됐다.

EBS영어강사 수잔 맥도널드

모교 국제업무 도우미로 나서

국내 방송가 인기 영어강사인 한국계 미국인 수잔 맥도널드(女·29세)씨가 지난 4월부터 모교의 국제업무 도우미로 나섰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대학이나 기업과의 협력업무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 작성과 학교 홍보 등을 위해 맥도널드 씨를 기획실 파트타임 직원으로 채용, 일주일에 10시간씩 도움을 받기로 했다.

모교 국제지역원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맥도널드

씨는 지난 97년부터 교육방송(EBS)의 「하이스쿨 리스닝 얼라이브」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등을 진행하면서 고교생들 사이에 인기를 모았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맥도널드 씨는 5세부터 9세까지 부산에서 살았으며 95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미국계 증권사에서 정치분석가로 활동한 바 있다.

〈變〉

제1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 인물을 추천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말까지 모교 기획담당관실(전화: 880-5081, 5086)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화
단신

新刊

■모차르트의 귀
—文國鎮 著

대한법의 학회 명예 회장인 文國鎮 (55년 醫大卒·고려대 명예교수) 동문이 단명·요

절한 음악가들의 미공개 의료 파일을 법의학자의 입장에서 밝혔다. 모차르트를 위시한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무소르그스키, 슈베르트, 쇼팽, 슈만, 멘델스존, 거슈윈 등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부逝한 음악가들의 병적과 사인 등을 담았다. <음악세계刊·값10,000원>

■프랑스 상징주의와

시인들

—金基鳳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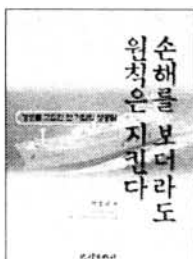
서강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金基鳳 (58년 文理大卒) 동문이 프랑스 상

징주의의 이론과 주요 시인을 망라해놓았다. 상징이라는 용어와 문학에서 상징이 차지하는 위치설명을 시작으로 프랑스 시단에서 상징주의의 성쇠와 계보를 소개하고, 상징주의의 시론과 이념, 보들레르 및 랭보를 위시한 시인들을 탐구했다. <소나무刊·값15,000원>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킨다

—朴鐘圭 著



바른경제 동인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주)KSS해운 朴鐘圭 (61년 文理大卒) 회장이 자신의 투명한 기업 경영에 대해 솔화했다.

기업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실수, 부끄러웠던 일, 고난 등을 사심없이 토로했다. <비봉출판사刊·값8,500원>

■민족의 악기,

단소를 배우자

—朴喜德 編著

국립국악학교 朴喜德 (81년



音大卒) 예술 부장이 국내 최초로 학습 지도안식으로 집필된 단소 교재를 펴냈다.

단소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조리있게 정리해 놓았다. <오아시스刊·값8,000원>

■아름다운 사람들

—서울성형외과 지음



모교 출신 성형외과의사 김현철·이재승·박정형·성창기 동문 등 4명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심리보고서.

성형외과 수술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감의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의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규니북스刊·값9,000원>

公演

■테너 李但悅 독창회

—5월 22일 문화일보홀

성신여대 성악과 李但悅 (67년 音大卒·독일가곡연구회장) 교수가 피아니스트 朴勝敏 (86년 音大卒) 동문의 반주로 독창회를 갖는다.

쾰른, 함부르크, 뮌스터, 잘츠부르크, 비엔나, 토론토, 오사카, 동경 등지에서 독일가곡 및 교회음악 독창자로 활약한 李동문은 이날 슈베르트의 가곡집 「백조의 노래」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종예술기획 2273-4455>

■李芳淑피아노 독주집

—신나라 뮤직 제작



연세대 李芳淑 (65년 音大卒) 교수가 KBS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음악인 연주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아노 독주집(CD·사진)을 냈다. 이번 음반에는 드뷔시 전주곡집 제1권 12곡과 브람스 8곡의 피아노 소품 중 6곡이 담겨있다. <雙>

동문의 소리

살맛 나는 세상으로의 초대

일주일에 두 번 모교 체육관에는 대학생들이 아닌 꼬마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북적거립니다. 비록 신체가 일반 아이들과 같지는 않지만, 송골 송골 땀이 맺히도록 뛰어 다니며 웃는 아이들은 어디 하나 또래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와 학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는 아이들.

지난 4년간 장애인 체육교실을 통해 아이들은 신체활동의 발달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상활동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폐증으로 먼 하늘만 쳐다보고 싶었던 웃던 원표가 출석에 손을 들며 대답을 하고 매트를 구르는 모습이 되기까지, 사고로 뇌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던 성호가 어색하지만 성큼성큼

뛰기까지. 어쩌면 일반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활동과 경험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교실 이전에 아이들이 접하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너무나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이들, 어쩌면 이것이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인구의 약 5퍼센트가 장애인인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장애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장애인이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이나 내가 장애인이 됐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金義洙 (64년 師大卒)
모교 체육교육과 교수

오늘도 체육관에선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며 체육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애가 체육교실을 통해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체육교실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할 뿐입니다. 하얗게 드러난 그 아이들의 웃음. 그 웃음 속에는 살맛 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어울려 하고픈 일을 웃으며 할 수 있는 그 곳. 그 곳이 바로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제 그 살맛 나는 곳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받지 않는 전화의 슬픔

홈킹 데이터를 준비하며 동계생 명부를 찾아 전화를 걸 때, 직장란이 비어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할 때의 암울함이 저 황사로 더욱 가중되는 것 같소.

한창 사회에서 활약하고 그 전성기를 맞이해야 할 이때에, 전화 받기를 거부하고 행사 참석을 피하려고 하는 많은 동기들.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친구들.

「야! 우리끼리 백수면 어

떠나」는 외침이 공허하게만 돌아 왔었소.

그 재능 많고 희망에 부풀어 있던 모습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변해 버렸을까.

하프타임을 넘어 제2의 인생을 봉사의 시기로 생각해 보지만, 세상은 생각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그저 낙오자의 서글픈 낯두리쯤으로 흘려들어버리는 것 같소.

정말 세상은 황사의 피해를



姜錫洪 (70년 商大卒)
세종문화회관 경영관리부장

어쩔 수 없다고 버려 두듯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키워 온 이 보배들을 언제까지나 그냥 실의 속에 버려 둘 것인가 물어 보고 싶소.

받지 않는 전화가 우리를 너무나 서글프게 하오.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

최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하여 사회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그 비효율성을 시정하고, 미비점을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혹시라도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대기업들이 과거처럼 특혜를 일방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불평을 뒷받침하는 가장된 논리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의연하게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

기업은 변화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일부 벤처기업이 호의적인 사회분위기를 이용하여 축재에만 몰두하고, 기술개발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스스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또는 그러한 허울뿐인 벤처기업이 벤처마킹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은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시장에서 외면 당하고, 도태되는 것이 동서양을 불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회, 정부, 중소기업이 각자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朴宰演 (88년 經營大卒)
(주)한백 부사장

나갈 때 국민경제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일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벤처기업에 대한 환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사라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로 바뀔 때 진정한 벤처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의 파이팅을 위하여!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0년 1월 28일~2000년 3월 28일 · 一般: 2000년 1월 27일~2000년 3월 28일〉

이 사

◇工科大学

▲우지형④단국대 명예교수
▲홍승희④성곡학술문화재단
▲강성안④한림공업(주) 대표
▲김세근⑤前서울기계공고
▲김주용⑥고려산업개발 사장
▲백성하⑥신호제지 부회장
▲안수길⑦모교 명예교수
▲이운형⑧(주)세아제강 회장
▲이준의④제일화성(주) 대표
▲장하린⑥금호전력 이사
▲최대현⑥태산정밀(주) 회장

◇文科大学

▲민경환⑦모교 교수
▲이옥경⑦성신여대 교수
▲이재복⑥동양시멘트 부회장

◇法科大学

▲곽종훈⑦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준용⑥변호사
▲신성순⑥삼성경제연구소
▲채태병⑦민사지방법원 판사
▲황영호⑦도고건축리클럽
▲황진호⑥변호사

◇師範大學

▲한도연⑤(주)청인 원장

◇商科大學

▲강종호⑥현대해상화재보험
▲우두현⑦(주)부천 고문
▲우찬목⑥前조흥은행장
▲전재희⑤대우투자자문 사장

◇音樂大學

▲김봉임⑤서울오페라단장

◇齒科大學

▲성영환⑥성영환치과원장

◇大學院

▲안무혁⑥한국발전研 이사장

◇行政大學院

▲황인성⑥금호그룹

일 반

◇人文大學

▲김능구⑧ ▲서정창⑧

◇社會科學大學

▲문수진⑦ ▲조태형⑤ ▲최지수④

◇自然科學大學

▲김무하⑧ ▲박영아⑧ ▲이경호⑦
▲장태식⑧ ▲강민현⑧

◇看護大學

▲태영숙⑦

◇經營大學

▲김재환⑧ ▲이명길⑧ ▲최병호⑦
▲황인옥⑧

◇工科大学

▲강-훈⑧ ▲고승구⑧ ▲김-한⑦
▲김경덕⑤ ▲김선우⑧ ▲김성준⑦
▲김창덕⑦ ▲김학근⑦ ▲나만근⑥
▲라병주⑥ ▲류기수② ▲박태근①
▲박태수① ▲송영부⑦ ▲안성욱⑦
▲안용학⑧ ▲이두식⑧ ▲이무호⑤
▲이상춘⑦ ▲이인재⑦ ▲임성순⑧
▲장기성⑦ ▲전근주⑦ ▲정경수⑥
▲정정주⑧ ▲조정상⑨ ▲편승용⑥
▲황석운⑦ ▲신종우② ▲윤재현⑦
▲이현규⑤ ▲장일환⑤ ▲한경호②
▲홍병만⑨ ▲황윤식④

◇農科大學

▲김영길⑦ ▲박범준⑧ ▲신준우⑤
▲이계은⑥ ▲전남수⑤ ▲한성식④
▲유-석⑤ ▲남필원④

◇文科大学

▲김윤식⑥ ▲김정희⑤ ▲김현석⑥
▲신윤식⑤ ▲어한수⑤ ▲이용숙⑦
▲조용선⑥ ▲최병두⑤ ▲최일환②

◇美術大學

▲송근영⑥ ▲유연식④ ▲이선옥⑦
▲이재영① ▲최영자⑦ ▲김형률⑧

◇法科大学

▲강민형⑧ ▲김도훈⑥ ▲김재락②
▲김정삼⑦ ▲김창근③ ▲남계호⑤
▲안대찬⑦ ▲양정석⑥ ▲윤정경⑤
▲이수경⑥ ▲이응한⑤ ▲장원관⑥
▲정병섭⑥ ▲조인학⑥ ▲서돈각④

◇師範大學

▲김재덕③ ▲김재윤⑦ ▲김지태⑤
▲민영오⑤ ▲박삼서⑦ ▲정희욱⑤
▲한-준② ▲임복희④ ▲이혜선⑦
▲현홍림④

◇商科大學

▲강경수⑥ ▲김규식⑤ ▲김동렬③
▲서승원⑦ ▲심재강⑦ ▲원영춘⑥
▲윤세익⑥ ▲이명환⑦ ▲정하용⑦

◇獸醫科大學

▲김동신⑥ ▲김일중② ▲박호인⑦
▲홍문표⑦

◇藥學大學

▲윤혜숙⑥

◇音樂大學

▲문호근⑦ ▲이종석⑦ ▲임병원⑧

◇醫科大學

▲김기호⑧ ▲김수용⑦ ▲박경주②
▲박춘식⑦ ▲이동호⑤ ▲정광원③
▲강일권④

◇齒科大學

▲고영식⑦ ▲권순배⑥ ▲박찬석⑤
▲손호현⑦ ▲염보용⑧ ▲오목훈⑧
▲이인우⑤ ▲정인환⑥ ▲조상래⑥
▲한성동⑦ ▲한형주⑥

◇經營大學院

▲권영천⑦

◇新聞大學院

▲김언호⑦ ▲김유원⑦

◇行政大學院

▲박대규⑦ ▲이종철⑦

◇최고경영자과정

▲곽순철③ ▲구자용③ ▲권병좌③
▲권용현③ ▲권혁홍③ ▲김명호③
▲김민원③ ▲김상국③ ▲김상길③
▲김석희③ ▲김용문③ ▲김용배③
▲김종배③ ▲김준용③ ▲김준길③
▲김태섭③ ▲김희수③ ▲남기욱③
▲남상목③ ▲남한일③ ▲문만수③
▲민성기③ ▲박주은③ ▲박준근④
▲성완중③ ▲성하룡③ ▲신상우③
▲안병갑③ ▲염영선③ ▲원형연③
▲유진석③ ▲이강태③ ▲이경식③
▲이경후③ ▲이기대③ ▲이무일③
▲이병운③ ▲이종명③ ▲이진호③
▲장문소③ ▲최동문③ ▲최동빈③
▲최병면④ ▲한진출③ ▲김성호③
▲김정욱③ ▲남용중③ ▲노광섭③
▲류근하③ ▲서경석③ ▲이유신③
▲이찬국④ ▲정종득③ ▲정진용③
▲조안후④ ▲조종석③ ▲진옥윤③
▲최준명③ ▲홍순철③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선경② ▲김우식③

◇고급금융과정

▲신경양⑤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오득환① ▲이동훈⑤

지 부분 담 금

◇스위스지부: 556,500원

◇필리핀지부: 556,500원

◇한국도로공사지부

▲강상규 ▲권-혁 ▲김경석
▲김상구 ▲김성환 ▲김영웅
▲김영진 ▲김인재 ▲김일환
▲김재형 ▲김종인 ▲김태수
▲문경수 ▲박선홍 ▲박영도
▲박영하 ▲박재범 ▲박찬민
▲봉영채 ▲서진원 ▲설운호
▲손병문 ▲손창익 ▲안상섭
▲유한상 ▲윤석구 ▲이상돈

▲이상원 ▲이성관 ▲이성수
▲이용양 ▲이용은 ▲이정근
▲이창근 ▲이형준 ▲이혜옥
▲정경자 ▲정운용 ▲정종홍
▲조대연 ▲조성민 ▲최영철
▲한승환 ▲황부연

월계: 6,403,000원

누계: 15,839,500원

수도권 지하철 탑승 및 버스 승차 서비스 (일부 버스 기능)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2000년 2월 1일~3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박해국④ ▲배희철⑦ ▲유-삼③
▲전인갑⑥

◇社會科學大學

▲김요은⑦ ▲송용준⑥

◇家政大學

▲정지은⑦

◇看護大學

▲정연강⑤

◇工科大学

▲공대식⑥ ▲김승대⑨ ▲김철수②
▲박은미⑥ ▲손석재⑨ ▲송재협⑦
▲임승범⑨ ▲장상배⑥ ▲형상철⑨

◇農科大學

▲김종우⑤ ▲김홍렬④ ▲성민기⑦
▲이우진③ ▲정경진⑥ ▲정진영⑦
▲최민철⑦ ▲홍석인⑤

◇文科大学

▲김화중⑤ ▲한이석⑦

◇美術大學

▲김호관⑧ ▲김영혜⑦ ▲한근석⑤

◇法科大学

▲방인걸⑧

◇師範大學

▲김광숙⑥ ▲김종찬⑤ ▲김철웅⑦

▲안주희⑦ ▲이계현⑦ ▲이우현⑧
▲홍영희⑧

◇獸醫科大學

▲김봉철⑦ ▲윤석국⑥ ▲정삼희④

◇音樂大學

▲김현경⑨ ▲황현정⑧

◇醫科大學

▲이주원④

◇齒科大學

▲김연중② ▲차용두⑦

◇大學院

▲김소희⑨

◇經營大學院

▲박정수⑥

◇保健大學院

▲손경희⑧ ▲유정아⑨ ▲임원수⑨
▲최동희⑨

◇최고경영자과정

▲김-반④ ▲이시웅③ ▲이용표③

◇최고산업전략과정

▲이상원② ▲임봉순⑥

◇국가정책과정

▲김광수④

◇고급금융과정

▲고경일①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장길용①